

국민권익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부패신고 1398

청렴서상

정부대표전화 110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ACRC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1112

2010 vol.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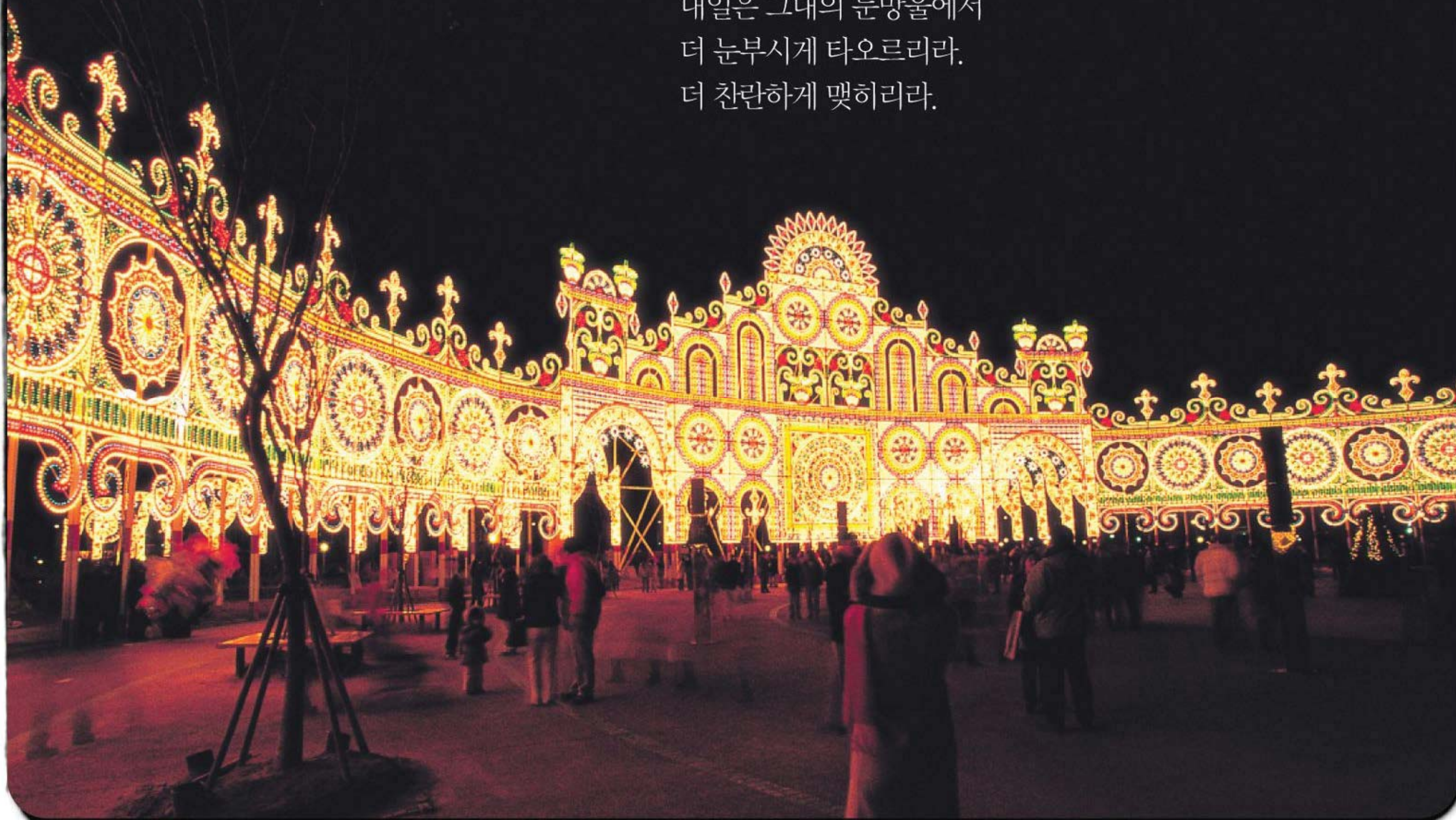
방울, 방울 빛방울이
그려낸
황. 홀. 경.

똑딱똑딱.....

또 하나의 새날로 가고자
저물어가는 어제는
해피엔딩을 만들려
예쁘게 그리고 곱게 단장을 하고
빨강불 반짝, 노랑불 반짝
초록불 반짝반짝
파랑불 반짝반짝

여기에 방울, 저기에 방울
새까맣고 캄캄한 밤하늘 아래
빛방울은 총총이 맺히고
오색빛깔 빛줄기들이
황홀한 수를 놓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까지 반짝이다 그칠 지 모르나
똑딱똑딱 똑딱똑딱
그 찰나를 즐기려
흘뿌리는 빛방울 속에
스르르 녹아들며 반~짝

그래,
반짝 반짝
내일은 그대의 눈망울에서
더 눈부시게 타오르리라.
더 찬란하게 맺히리라.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0.1112 vol.17

기획°특집

기획 특집	04	청렴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G20 반부패 행동계획
ACRC Inside1	07	국제 반부패 리더십 및 협력 강화 심포지엄
ACRC Inside2	11	소셜 미디어로 국민들과 나누는 속 깊은 이야기, 그 속에서 피어나는 찐~한 情
Global ACRC	14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IOI

희망°공감

다시 찾은 권익 & 다시 만난 사람	18	한순덕 전도사에게 '새 보금자리'의 행복을! - 주택건축민원과 이일우 조사관
만화로 보는 고충처리	22	밀양 '금호마을' 주민들의 60년 숙원 마침내 풀어내다!!
현장에서 찾은 희망	24	양심의 호루라기로 공정한 사회 실현을! -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기자의 취재노트	27	초고층에 살려면 '인공 재해'는 각오해야 한다?
희망 인터뷰	30	발레리노 이원국

행복°누림

Eco를 만나는 Global 산책	34	자일리톨보다 더 좋은 물맛을 가진 산타클로스의 나라, 핀란드
브라보! 대한민국!	38	우리 문화유산 길러낸 보배로운 흙, 황토
화가의 숨은 그림 읽기	41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박연폭포가 그려낸 주체적인 우리 미감
생활법률 110	44	매우 편리한 신용카드, 보다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통째로 보는 책 한 권	46	철학, 개그처럼 즐겨라!
ACRC News	48	
편집 후기	50	

청렴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G20 반부패 행동계획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20개국 정상들,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 표명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반부패 의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G20 정상들은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9개 분야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공정한 사회’ 구축을 국정 중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 역시 이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12일 서울 G20 정상회의 직후 ‘서울선언’을 발표하면서, 반부패 의제 논의 성과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해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서울선언’에 포함된 것은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글·박성권 부패방지국장 정리·전채련 편집실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손을 흔들고 있다.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을(Shared Growth Beyond Crisis)'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제5차 G20 정상회의가 11월 11일, 12일 서울에서 양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는 G20회원국과 5개 비회원 초청국, 7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그간 G20이 지향해 온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한층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 성장 및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부패 방지 및 척결의 중요성에 대해 재확인하고, G20 회원국 간의 공조를 약속하는 반부패 행동계획을 승인한 것 또한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공정한 지구촌 구현을 위한 발판, 'G20 반부패 행동계획'은……

부패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며, 그 폐해가 국경을 넘어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수십 년 전부터 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제사회의 반부패 논의와 협력은 1977년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제정을 시작으로, 199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제정을 거쳐 2003년 UN반부패협약 체결에까지 그 성과를 이루었다.

이에 더해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계기로 급부상한 세계경제협력체인 'G20 정상회의'에서도 지난 피츠버그 정상회의 이래 반부패 의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주된 원인이며 경제 성장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 부패 문제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하였으며, 지난 6월 개최된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보다 실천적인 반부패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G20 반부패 실무 그룹'을 설치하는 데 합의하였다. 반부패 실무 그룹에서는 그동안 컨퍼런스콜 및 대면회의를 통해 G20 국가와 관련 국제기구



정상회담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미 두 정상



한불 정상회담의 한 장면

의 반부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상들에게 제출할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마련하였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부패가 경제발전의 심각한 장애물이며, G20 국가는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또,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 분야에서 반부패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분명히 하고 이를 정상선언문의 부속서(annex)로 채택하였다.

이 행동계획에는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등 주요 반부패 국제협약에 대한 회원국들의 가입 및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부패공무원의 금융시스템 이용 방지, 부패공무원의 입국 및 피난처 제공 금지를 위한 협력 체제 고려, 해외 은닉자산 회복 지원 등 각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부패신고자 보호 규정 제정 및 이행, 부패 방지·척결을 위한 부패방지기구의 독립성 보장, 민간 부문의 국제 반부패 노력 참여 독려 및 반부패 민관 파트너십 증진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으며, 공공부문 및 국제기구의 청렴성·투명성·책임성을 증진시킬 것임을 결의하고 있다.

'G20 반부패 행동계획'에 대해 G20 국가들은 합의사항이 단순한 공약이 아닌 실효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동계획의 이행에 대한 각국 및 공동의 진전 상황을 앞으로 매년 정상들에게 보고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된 구체적인 반부패 조치들은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이 큰 G20 국가들이 부패 척결에 있어 모범 사례로서 행동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성장 과 공정한 지구촌 구현을 위한 발판이 되리라 여겨진다.

**G20 반부패 선도 국가로서
반부패 국제협력을 확대할 것**

권익위는 한국의 부패 방지를 총괄하는 기구로서 지난 2월부터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반부패 의제화를 제안한 후, G20 반부패 실무 그룹의 한국 측 수석 대표를 맡아 국제적인 반부패 논의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간 법무부·금융정보분석원·외교부·지경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반부패 행동계획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조율해 왔으며, 반부패 실무 그룹 논의 시 회원국들의 반부패 역량 배양 지원 등을 강조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중재자(Consensus Builder)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

앞으로도 G20 반부패 행동계획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반부패 행동계획과 관련된 국내 반부패 규범 및 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G20 차원의 반부패 논의 및 이행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반부패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의 우수한 부패 방지 정책과 행동계획에 대한 이행 노력을 널리 알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행동계획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선언’에 포함된 만큼 G20 반부패 선도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이행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때이다.🌍



한러 단독 정상회담의 한 장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열띤 논의를 펼치고 있다.

권익위의 반부패 청렴 의지를 전 세계에 전한 '국제 반부패 리더십 및 협력 강화 심포지엄'

국민권익위원회가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에 걸쳐 주최한 '국제 반부패 리더십 및 협력 강화 심포지엄'은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였다. 특히 최근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 의장국의 반부패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반부패 의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국격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글 · 신보영 문화일보 기자 정리 · 전채련 편집실



이번 심포지엄은 반부패·청렴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개회사를 하고 있는 박인제 사무처장



제1세션에서 국제반부패라운드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발표 중인 참석자들

먼저 참석자 면면이 다채로웠다. 10월 5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쉐라톤 위커힐 호텔에서 개막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인사는 총 244명이었다. 외국인들의 국적도 멀리는 아프가니스탄과 동티모르에서 온 참석자까지 총 52명에 달했다. 패널로 참석한 외국 인사 중에는 프랑수아 바디(Francois Badie) 프랑스 부패예방청(SCPC) 청장, 카심 모하메드(Kassim Mohamed)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MACC) 위원장, 모크 야신(Moch Jasin)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위원장 직무대리 등 기관장급 인사도 대거 참석했다. 특히, 프랑스·인도네시아는 G20 반부패 실무그룹 공동 대표이기도 하다.

반부패 관련 범세계적인 사안을 다룬 심포지엄

권익위 박인제 사무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한국은 G7이 아닌 나라 중 최초의 G20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재자(consensus builder)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정책 제언이 G20 회원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효과적인 청렴정책 수립과 이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인주 대통령실 사회통합 수석비서관도 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사회 각 부문에서 반부패·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익위 위원장을 역임한 이재오 특임장관은 “권익위는 올해를 ‘청렴한 세상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반부패 청렴 운동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이 같은 반부패·청렴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

록 개도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개막식에 이어 진행된 심포지엄은 크게 국제 반부패 라운드의 형성과 발전, 주요 국가들의 반부패 정책 우수 사례 및 청렴도 제고 노력, 국제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반부패 선도 국가들의 역할 등 3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발제자로 나선 지오반니 갈로(Giovanni Gallo) 유엔 마약범죄국(UNODC) 부패범죄 전문가는 “UN반부패협약 등 전고한 반부패 규범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적 금융위기 극복의 해결책이다”라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케빈 데이비스(Kevin Davis) 미국 뉴욕대 법대 교수는 “국제 반부패 규범이 부패와의 싸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세션은 에드워드 리드(Edward Reed)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야신 인도네시아 KPK 위원장 직무대리는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는 2003년 설립됐으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도입해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폴 로버츠(Paul Lachal Roberts) EU 부패방지총국(OLAF) 국제기구 조정 자문관은 최근 도입한 ‘부패 신고 체계(Fraud Notification System)’를, 박성권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렴 컨설팅’과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프랑스, 중국, 미국 등의 반부패 정책과 국제 공조가 주요 안건이었다. 바디 프랑스 부패예방청장은 “수원국에 반부패 시스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국제 협력 활동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위시엔청(Yu

Xiancheng) 중국 국가예방부패국 부패예방국장은 “대법원, 감사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했고, 캐나다·미국 등과 양자 반부패 법 집행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반부패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찰스 카루소(Charles Caruso) 미국 국무부 법률자문관은 반부패 선도 국가들은 “불법 행위 규명, 반부패 관련 공동 연구 및 공동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했으며, 패트릭 몰렛(Patrick Moulette) OECD 반부패국장은 “33개 OECD 회원국과 아르헨티나·브라질·남아공 등이 G20 반부패 의제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 주장했다.

전 세계를 청렴으로 물들이는 권익위의 선진 반부패 정책

심포지엄 첫날은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향후 G20 차원에서 반부패 리더십과 협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권익위 사무처장의 폐회사와 함께 폐막했다.

주요 참석자들은 10월 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추가 세션에서 ‘중앙-지방정부 간 반부패 협조 체계’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연홍 권익위 권익제도기획관이 발

제를 통해 “부패방지 제도개선은 권익위가 추진하는 제도개선과 함께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적 제도개선’이라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고, 최동운 서울시 감사관은 서울시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전면 시행,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 등 여러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이번에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권익위의 역할에 대한 호의적 평가가 많았다. 애드리언 포저드(Adrian Fozzard) 세계은행 은닉자산회복(StAR) 사무국장은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 측정은 국제사회가 배울 수 있는 흥미로운 정책으로 다른 나라에도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카루소 미국 국무부 법률자문관도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에서 권익위의 권고를 인지했고,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느냐”고 묻는 등 권익위의 활동에 커다란 관심을 표했다.

객석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제기한 ‘공정사회’ 화두와 관련해 권익위의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이 여럿 나왔고, 권익위 측에서는 “청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단체·기업·정부가 참여하는 투명신뢰사회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패 행위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부패유발 요인을 찾아 제도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



제3세션에서는 반부패 선도 국가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발표의 주요 내용을 열심히 기록하고 있는 참석자들

케빈 데이비스(Kevin Davis)
뉴욕대 법대 교수 인터뷰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는 국제사회의 반부패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권익위가 10월 5일 주최한 ‘국제 반부패 리더십 및 협력 강화 심포지엄’에서 만난 케빈 데이비스(Kevin Davis) 미국 뉴욕대 법대 교수는 “부패 문제는 초국가적 현상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협력·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

개국(G20) 정상회의는 국제사회의 반부패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데이비스 교수는 반부패 레짐

(regime) 연구가로, 이번이 그의 첫 한국 방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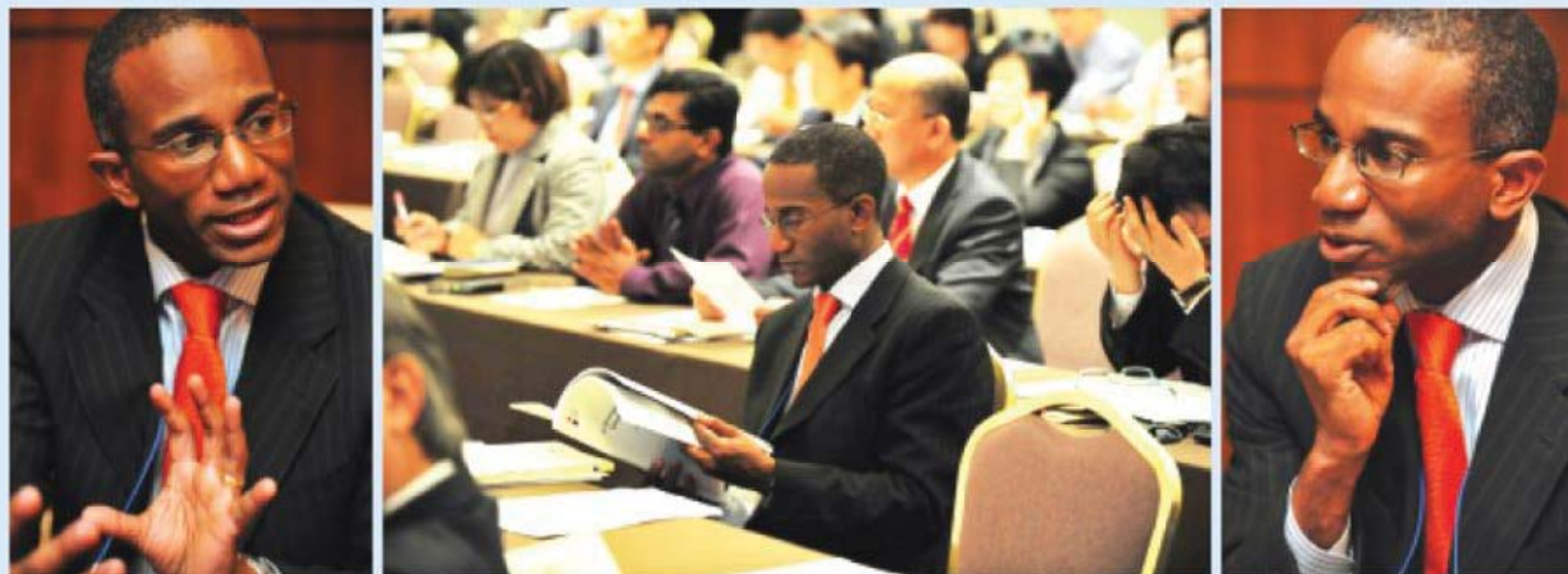
데이비스 교수가 G20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부패 문제는 연결고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 없이는 척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데이비스 교수는 “한국·미국 등이 주도적으로 ‘부패와의 전쟁’에 나선다고 해도, 다른 나라가 동참하지 않으면 부패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전했다. 데이비스 교수는 “부패 문화는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 쉽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지역사회 간 공조를 통한 예방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특이한 점은 데이비스 교수는 ‘엄정’, ‘엄격’이라는 잣대를 선호하지 않았고, ‘무(無)관용’ 원칙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는 “제로(0) 관용 원칙은 부작용도 많은 만큼, 그보다는 장기적 차원에서 교육·훈련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의 부패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국제사회에서 복수의 반부패 기구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국제기구 간 역할이 중첩되더라도 모두 서로 도움이

되며, 당분간 서로 경쟁하는 것도 반부패 레짐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했다. 일례로 “G20 정상회의 회원국들은



경제성장 경험에서 우리나라 ‘뇌물’ 퇴치 노하우가 있다”며, 20개국 주요 정상들이 1년에 1~2회 가량 만나서 의지를 함께 다진다면 그 효율성과 역할이 상당히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유엔은 소규모 국가들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며, “전문 분야에 맞춰 다양한 기구를 활용하면 경쟁 속에서 효율적인 기구만이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정 화두로 내건 ‘공정한 사회’의 조건에 대해서는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사회가 공정하느냐’는 우회적 질문에 “미국 사회에 감사하는 것 중 하나는 공정성에 대해 끊임없이 신경 쓰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소셜미디어로 국민들과 나누는 속 깊은 이야기, 그 속에서 피어나는 찐~한 情

“아우~ 추워요. 손이 얼어서 호호 불면서 키보드 치고 있어요.”, “호오~호오~ 권익위 직원 분도 장갑이라도 끼고 일하세요.” 정부기관의 공무원과 국민 간의 이런 대화를 상상해 본 적 있는가?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국민을 행정서비스 제공 대상으로만 여겼다. 그러나 온라인 소통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과의 관계를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친한 친구 사이로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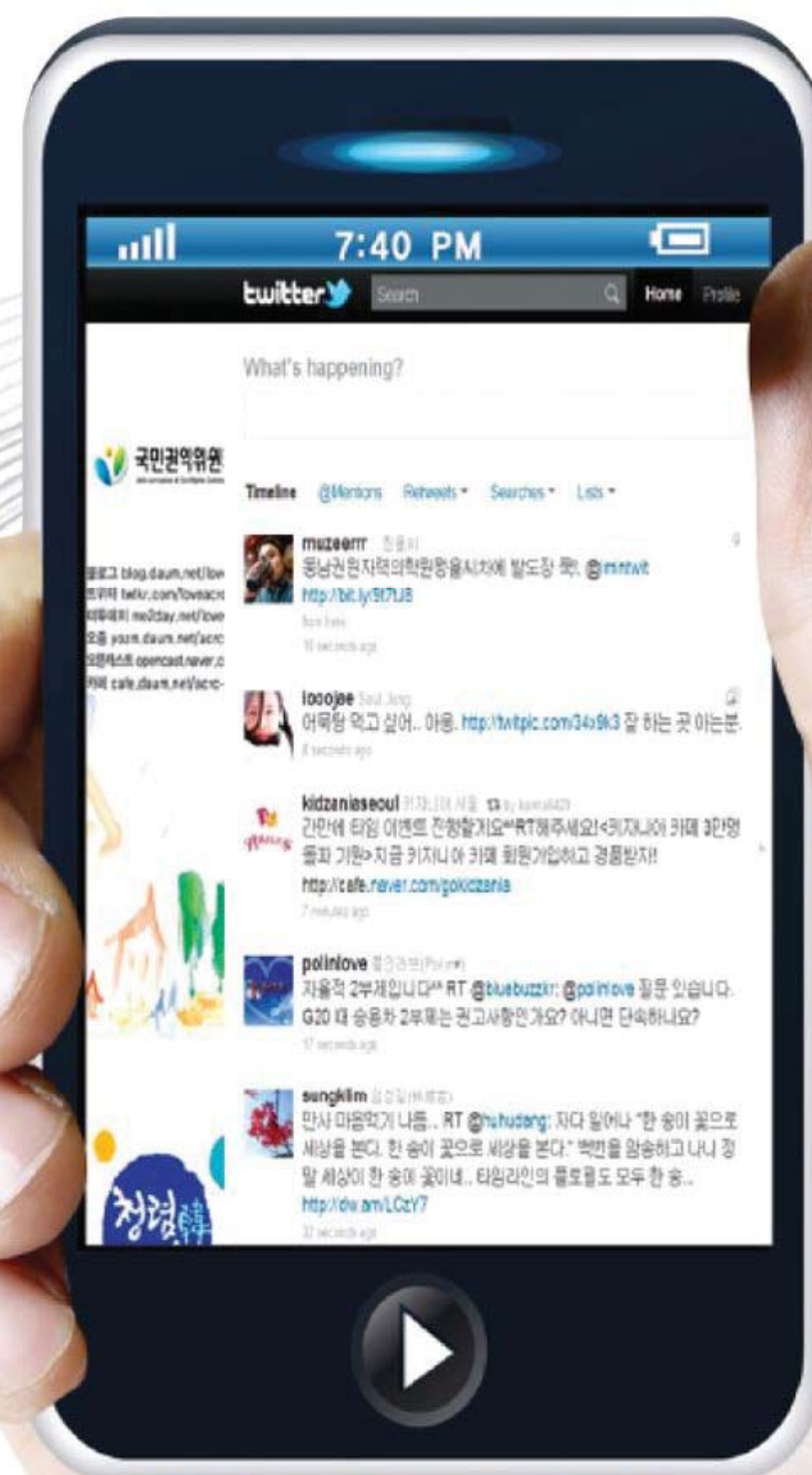
글·김윤진 정리·전채련 편집실



Daum
Agora Social Communication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Blo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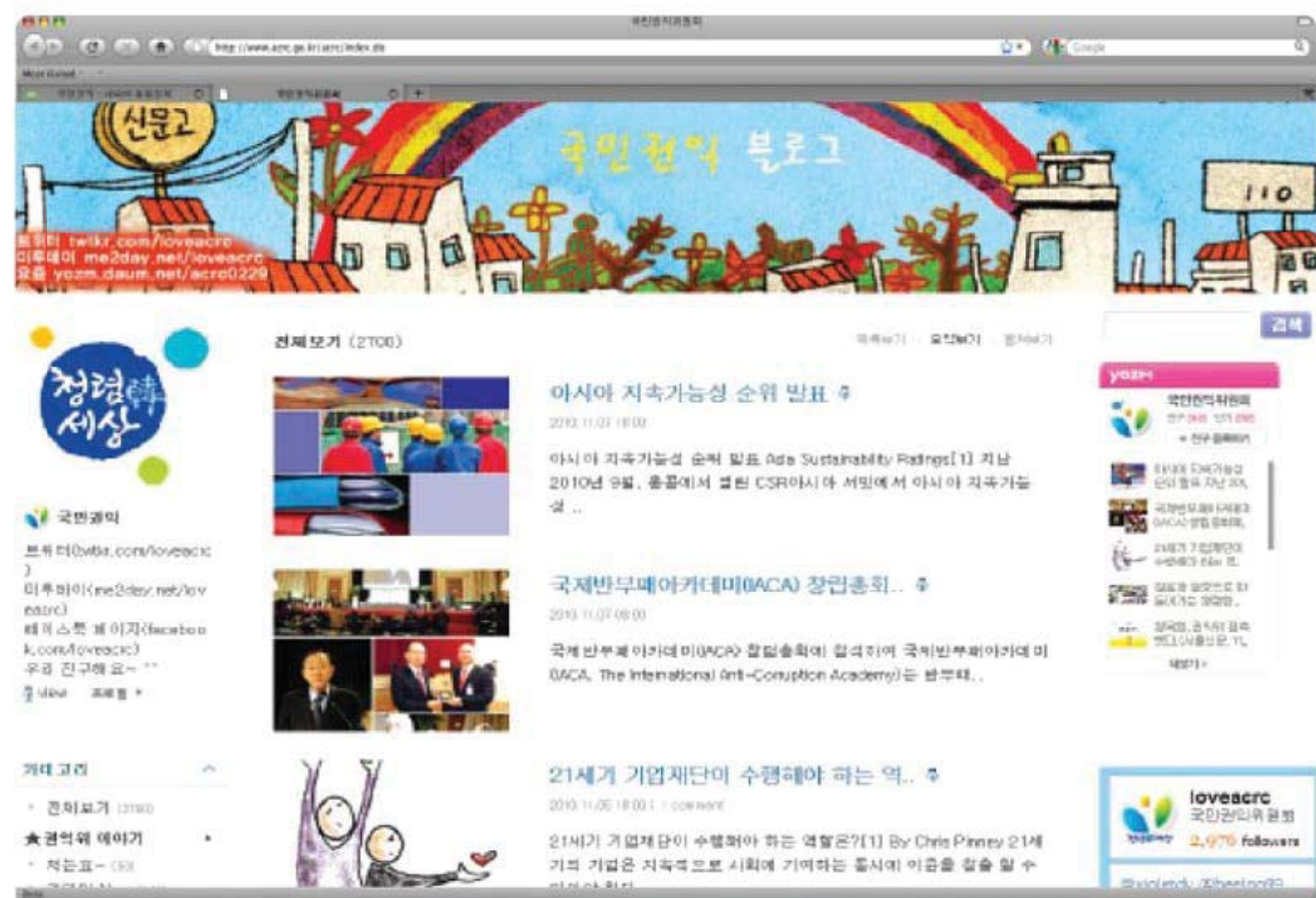
다양한 미디어 채널이 등장함에 따라 신문, 잡지 등 전통적 매체에 비해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가 많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정부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춰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국민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국민권익> 블로그 개설을 시작으로 소셜 미디어인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권익증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권익위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국민들에게 조금 더, 보다 더 가까이~ <국민권익> 블로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일도 하는군요.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세요.” <국민권익> 블로그를 통해 가장 많이 듣는 격려 중 하나다. 이 블로그는 위원회 소식 뿐 아니라 제도개선 및 고충해결, 블로그 기자단, 웹툰 등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 초기에는 온라인 홍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점차 단골 방문객이 증가하며 발전의 나날을 거듭하고 있다.

대표적인 메뉴를 몇 가지 소개하면 첫째, ‘권익플러스’에서는 제도개선 및 고충해결 관련 보도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편집하여 어려운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조서관이 간다’는 ‘이동신문’ 업무를 시리즈물로 게재하고 있다. 제목도 ‘1박 2일’, ‘무한도전’ 등 네티즌의 관심을 유발하는 키워드로 패러디하고, 사진도 재미있게 편집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의 미담 사례, 민원인의 감사편지 등 감동적인 사연과 따뜻한 이야기를 소개하여 네티즌의 마음도 움직이고 있다. 셋째, ‘110세상 속으로’는 110콜센터 상담원들의 고충민원 상담 사례를 글과 일러스트로 편집하여 서민고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넷째, ‘진짜 청백리’는 조선시대 이전의 청백리 인사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소위 출세한 인물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공과 사를 분명히 하며 검소하게 살았던 이야기들 속에서 큰 교훈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상사는 풍경’은 블로그 기자단이 꾸며가는 코너로 사회·시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적인 소재를 발굴하여 이를 기사화하였다.

특히 많은 정부부처가 ‘대학생’을 중심으로 블로그 기자단을 구성하고 있는 반면, <국민권익> 블로그는 20대부터 50대까지의



권익위 공식 블로그 첫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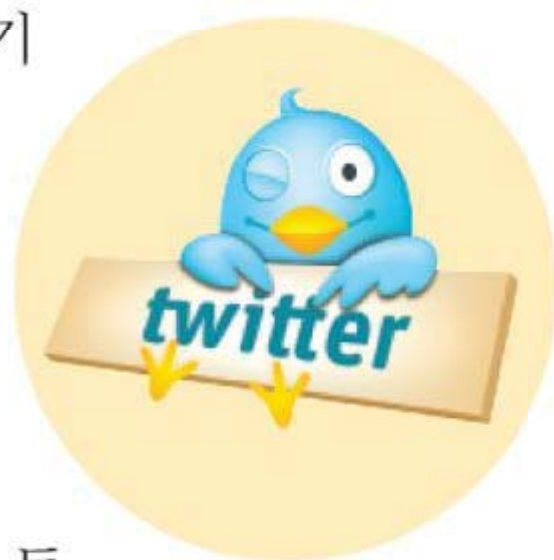


Social Network Service는 정부와 국민 간의 거리를 좁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폭넓은 연령층 그리고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기자단을 선발하였다. 2009년 7월, 1기 활동을 시작으로 현재 4기까지 운영 중이며 기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웹툰까지 제공하고 있다. 특히 웹툰의 경우, 권익위의 어렵고 딱딱한 업무를 재미있게 표현하여 네티즌의 이해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총 14회의 크고 작은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 여러 모로 노력 중이다. 각 이벤트는 국민의 공감을 이끌 공익적인 주제로 기획되었는데, 특히 지난 1월 아이티 대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해 기획한 ‘아이티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세요’라는 이벤트에서는 문화상품권을 아이티에 기부하여 네티즌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바로 이 시각, 트위터에 따르면……”

요즘 기자들이 트위터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는 일이 많아졌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소셜 미디어의 활용도가 높아져 전방위적인 소통이 가능한 트위터의 활용도가 커졌기 때문이다. 트위터는 140자 이내로 표현하는 단문 블로그이다. 트위터의 원칙은 ‘선한 힘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1월 아이티 대지진 때 현장소식을 세상에 가장 먼저 알린 것은 트위터였다. 뿐만 아니라 기금과 구호품 모금에도 앞장서는 등 구호작업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중국의 위그르 유혈사태도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국내의 경우, 김연아 선수와 이외수 작가 등 유명인들이 트위터를 사용하면서 사용자가 급속도로 많이 늘어났다.

“식사는 하셨나요?”, “저는 감기에 걸렸는데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예취!”, “이벤트 포장을 직원들이 직접 하시는 줄 몰랐어요. 정말 고생하시네요. 토닥토닥~” 트위터에서 권익위 온라인홍보 담당자가 국민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다. 이와 같이 트위터는 마치 채팅하는 것처럼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익위도 정책 고객들을 상대로 친근하고 편안하게 친구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또 권익위 직원들은 트위터 친구들의 질문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답해주고 있으며, 수시로 대화를 주고받는 등 왕성한 활동으로 국민들과 따뜻한 친밀감을 형성해나가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권익위 팬 만들기!

페이스북은 글로벌판 미니홈피라고 불린다. 전 세계에서 약 5억 명 이상의 인구가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관계를 맺으며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오프라인의 친구를 중심으로 관계를 확장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 친구를 맺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권익위는 페이스북 상에서 일일이 찾아다니며 친구신청을 하고, 인사를 건네며 권익위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정부기관에서 국민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하고 친구를 맺으려는 노력이 대단하다”, “정부기관에서 먼저 나에게 아는 척을 해주다니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라며 국민들이 권익위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었다. 그 결과, 권익위의 페이스북은 지난 8월 14일 개설 이래 불과 2개월 만에 친구 ‘10,000명 돌파’라는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냈다.

중양행정기관 중 권익위의 페이스북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 그리고 성공적인 블로그 운영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권익위의 페이스북은 이벤트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식으로 전하여 국민들과 친근하게 소통했던 것이 정부부처 중 가장 짧은 시간에 높은 인기를 얻은 비결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Daum)아고라

네티즌과의 대화방~ 활짝!

‘110 연말정산!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진다!’, ‘방학하면 배가 고파요. 방학 때도 밥 먹고 싶은데……’ ‘보이스피싱’이런 전화번호 조심하세요! 등 친서민적인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권익위는 다음(Daum)의 아고라에 네티즌과의 대화방을 개설했다.

아고라를 통해 단순히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생각을 실제로 듣고 이를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민권익을 보다 증진하기 위함이었다.

권익위는 ‘모든 국민은 「국민권익」기자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 오픈캐스트, 웹진 발행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 활동으로 권익증진 정책도 널리 알리고 있다.



4기 권익위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정기 이사회에 참석한 각국 옴부즈만들이 회의를 마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IOI

국민권익위원회 박인제 사무처장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20일 사이 버뮤다 해밀턴에서 개최된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정기 이사회에 참석했다. IOI(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는 각국의 옴부즈만 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Non-profit Organization)으로서, 옴부즈만 기관 간 협력을 위해 1978년 탄생하였다. 현재 100여 개국, 120여 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 지역별로 지역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글·장용희 국제교류담당관 사무관 정리·전채련 편집실



국 민권익위원회는 1996년 IOI에 가입한 이래 지역이사를 역임해오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아시아지역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IOI는 매 4년마다 총회를, 해마다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IOI 이사는 각 지역의 지역 부회장을 포함한 지역이사 3~4명과 집행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행정구제법 교과서에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소개된 것은 70년대였으며, 옴부즈만으로서 (구)고충처리위원회가 발족된 것이 1994년이였다. 반면 스웨덴 옴부즈만은 1809년 발족되었고, 유럽과 영연방국가들을 중심으로 옴부즈만의 영향력이 확산되면서 남미와 아시아에까지 그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를 감안할 때, 선진 행정구제 제도를 전파하고 발전시키려는 국제협약체인 IOI 활동에 참여한 권익위의 모습에서 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권익위의 미래의지가 확인된다.

새로운 IOI 집행부의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지난 6월, 전임 이재오 권익위 위원장의 사퇴로 금번 이사회에는 박인제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아시아지역의 옴부즈만 현황을 보고하고, 아시아지역에서 새롭게 가입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한 승인을 검토했다. 금번 이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집행부의 전면적인 교체가 가장 큰 이슈였다. 2004년부터 회장을 맡아온 미국 IOWA주 옴부즈만인 William Angrick이 사퇴하고, 새롭게 뉴질랜드 옴부즈만 Beverley Wakem이 회장이 되었다. 또 부회장으로 북아일랜드 옴부즈만 Tom Frawley, 재무이사는 홍콩 옴부즈만인 Alan Lai가 선출되었다.

신임 집행부는 작년 10월부터 비엔나에 정착한 새 사무국에서 본격적으로 여러 국가 옴부즈만들 간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IOI 기관 회원 간 비교연구(Comparative Research Project)를 추진하여, 옴부즈만 기관 간 협력을 진척시키고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와의 협력도 보다 강화해나갈 것이다.

이밖에도 옴부즈만 훈련 프로그램 중 2006년부터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옴부즈만 특별조사팀(SORT)의 SYT(Sharpen Your Teeth) 세미나를 공식적으로 지원함으로써, IOI 회원 기관의 직원들이 우수한 조사 기술 및 대민대응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익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시아지역의 옴부즈만을

총괄하는 권익위의 선도적인 역할

아시아지역 옴부즈만들은 각각 개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영연방이나 유럽 옴부즈만들이 대부분 의회형 옴부즈만으로 행정부와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기관인 반면, 아시아나 남미의 옴부즈만들은 민주화과정에서 절충된 인권 보호 기능에서 출발했다. 아시아 옴부즈만 중에는 기소권을 가진 기관(필리핀)도 있으며, 부패방지 기능과 인권보호 기능을 모두 가진 기관들도 다수 있다. 또 파키스탄 옴부즈만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수장을 임명하지만, 행정부로부터 조



박인제 사무처장이 Andre Marin 캐나다 온타리오주 옴부즈만과 정책 협의를 마친 후 기념품을 교환하고 있다.

직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확실히 독립했다.

금번 이사회에서는 파키스탄의 신드지방 옴부즈만과 연방은행 옴부즈만의 자격조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신드지방 옴부즈만은 가입시키고, 연방 은행 옴부즈만은 실상 민간부문인 은행 관련 업무 고충민원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심사를 유보하였다.

보다 나은 IOI의 내일로 가기 위해서는……

IOI는 사무국을 캐나다 앨버타에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전하면서 국제기구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국가를 각각 IOI 멤버로 영입하기 위해 까다로운 회원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인제 사무처장은 “각 기관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고 조사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기본적인 옴부즈만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IOI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IOI는 신규 기관들이 자국 내에서 독립성과 기능적 권한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당국에 대해 적절한 권고를 하는 등 다양한 측면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박인제 사무처장은 해외 주요 옴부즈만과의 만남을 통해 기관 간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일례로 마카오 옴부즈만은 아시

아지역 내 한국-파키스탄-마카오 옴부즈만 간 공동 비교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각국 언어로 출간할 것을 제의하였다.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방 옴부즈만(IOI 유럽지역 부회장)은 2011년 초 권익위 방문을 희망하면서, 사전에 양국의 업무내용을 신중히 분석하여 협력 사항들을 교환하자는 제의를 하였다. 박인제 사무처장은 마지막으로 10월 20일 버뮤다 대학 포럼에서 권익위의 특징과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특히 국민신문고 시스템과 110콜센터, 이동신문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으며, 버뮤다 옴부즈만·뉴질랜드 옴부즈만 등은 권익위의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IT환경에서 옴부즈만 기관이 어떻게 진화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정보의 통합성과 신속성을 표방하는 IT환경은 국민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다양한 정부기관들의 접수창구와 민원양식, 검토과정, 처리결과들을 체계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다.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행정의 적절성을 담보하는 국가 옴부즈만의 핵심적인 역할을 고려해본다면, IT를 통해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나가는 국민신문고의 발전 경로는 미래 옴부즈만들을 위한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OI 신임회장에 당선된 Beverley Wakem 뉴질랜드 옴부즈만과 권익위 대표단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박인제 사무처장이 Rafael Ribo 스페인 카탈란 옴부즈만과 협력방안을 논의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IOI 정기 이사회에 참석한 각국 옴부즈만들이 열띤 회의를 진행 중이다.



사회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국민권익위원회

희/망/공/감

다시 찾은 권익 & 다시 만난 사람	18	한순덕 전도사에게 '새 보금자리'의 행복을! - 주택건축민원과 이일우 조사관
만화로 보는 고충처리	22	밀양 '금호마을' 주민들의 60년 숙원 마침내 풀어내다!!
현장에서 찾은 희망	24	양심의 호루라기로 공정한 사회 실현을! -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기자의 취재노트	27	초고층에 살려면 '인공 재해'는 각오해야 한다?
희망 인터뷰	30	발레리노 이원국





파주시 G교회에서 만난 이일우 조사관(왼쪽), 한순덕 전도사(중앙), 김창섭 목사(오른쪽)

한순덕 전도사에게 ‘새 보금자리’의 행복을!

주택건축민원과 이일우 조사관

한국인의 재산권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이 때문에 주택이나 건축 관련 사항은 초미의 관심사다. 연간 3천여 건의 주택 및 건축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주택건축민원과 사람들은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전문적인 민원해결을 추구한다. 전문성과 인간미로 무장한 이일우 조사관과 함께 소중한 권익 찾기에 나선 사람들을 만나 보았다.

글·편경애 편집실 사진·조향진

쌀쌀한 기운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10월 어느 날, 경기도 파주시 금촌2동에 위치한 G교회 앞에서 반가운 만남이 이루어졌다. 김창섭 목사와 한순덕 전도사 그리고 권익위 주택건축민원과 이일우 조사관의 만남이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지만 반갑게 만나 어느새 덕담을 주고받는 이 사람들. 그들의 만남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한순덕 전도사

“만원 한 장이라도, 절실한 사람에게는 남의 집 금송아지보다 귀한 법”이라며 이일우 조사관에게 감사를 표하는 김창섭 목사는 원래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G교회를 이끌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도시계획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사업으로 교회 건물 이전통보를 받고 밤잠을 설치던 때가 작년 12월이었다. 신친의 유언으로 세운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전 보상을 받아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장애인, 노숙인 등을 돌보며 교회 일을 관리하던 한순덕 전도사가 오갈 데가 없어진 것이다. 한 전도사는 그 동안 교회에서 숙식을 하며 생활해왔던 것.



보다 못한 김창섭 목사는 관할기관인 금천구청의 사회복지과에 선처를 호소했다. 딱한 사정을 들은 담당 주무관은 현행 법상으로는 구제방법이 없다는 설명밖에 해 줄 수가 없었다. 공공사업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질 경우, 거주하던 주민에게는 주거이전을 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교회 건물은 주거용이 아니라 점포로 간주되기 때문에 한 전도사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 하지만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구제방법을 고민하던 담당 주무관이 김창섭 목사에게 권익위를 통한 민원접수를 권한 것이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커다란 행복 이만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창섭 목사의 민원을 접수한 사람은 주택건축민원과 이일우 조사관. “개발계획이 발표된 지역에는 거주 사실을 위장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목사님의 글에서 진정성이 느껴지더군요.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다. 전후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법령에 의한다면 한순덕 전도사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만 재확인되었다. 이 조사관은 조금 더 고민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볼 때, 해당 건축물이 점포용도이긴 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다면 이주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며 법률의 취지에도 맞다는 판단이 섰다. 그런 판단 하에 이 조사관은 실제 거주에 대한 추가 확인 자료를 요청했다. 금천구청의 담당자는 교회를 실제로 방문해 침구류, 주방기기 등 한 전도사의 거주 흔적을 일일이 확인해 이 조사관에게 제출했다. 한 전도사의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조사관은 또 한 번 고민했다. 위원회에서 의견표명 등의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데 한 전도사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할 때 주거이전비 지급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서 우선 금천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선처를 호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마음으로 대하고 발로 뛰는 정에 부대 주택건축민원과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내 집 마련’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택이나 건축문제는 국민들의 주된 관심사인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분야의 민원에는 당연히 무게가 실리기 마련.

권익위 주택건축민원과의 민원은 크게 주택분야와 건축분야로 나뉜다.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재개발 및 재건축, 공동주택, 임대주택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주택분야가 민원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건축허가, 건축공사 피해,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건축분야 민원은 나머지 3분의 1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한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 주택

그리고 금천구청은 권익위의 협조공문을 토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조치하게 된 겁니다.”

연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로 기쁨을 전하는 한순덕 전도사는 마침내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아 금천구 시흥동에 조그만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시흥동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주와는 거리가 멀지만 시흥동에 방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윤활유 자처하는 해피 바이러스, 이일우 조사관

“호스피스 활동처럼 좋은 활동을 하시니까, 거기에서 쌓은 덕이 이번 민원 해결에 바탕이 된 게 아닐까요.”라며 특유의 위트를 발휘하는 이일우 조사관. 그는 학부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도시계획학 석사를 받은 후 권익위에서 주택건축민원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 업무가 벌써 5년째. 주택과 건축, 도시계획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금은 도시공학 박사와

정을 밝고 있다. 민원 해결하라, 공부하라 바쁜 그에게 지칠 때가 없는 것은 아닐 터. 그래도 그의 트레이드마크는 스마일이다. 비결은 무엇일까? 이 조사관은 웃음치료사,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까지 따 가며 웃음으로 자기발전을 해 온 사실을 털어놓았다.

민원해결에 대한 생각도 남다르다. “조사관 혼자 해결하는 민원은 없다고 봐요. 저는 명석을 깔아드리는 일을 합니다.” 민원인과 피신청기관의 담당자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점점을 찾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그의 몫이라는 것. 또한 희망을 갖고 찾아오는 민원인, 해결의 의지가 있는 피신청기관의 담당자, 윤활유 역할을 하는 조사관이 삼박자를 맞출 때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권익위 조사관 모두가 민원인들의 권익을 찾아 드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걸 믿어 주신다면 민원인과 피신청기관 모두 윈-윈할 방법을 찾는 것도 더 빨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박용택 주택건축민원과장



추계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산에 오르고 있는 주택건축민원과 직원들

건축민원과 박용택 과장의 설명이다.

주택건축민원과는 국토해양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과 조율할 일이 많다. 민원에 따라서 주택, 건축, 대지, 도로 등 주택법이나 건축법뿐 아니라 공유지, 도로 등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꿰고 있어야 하는 만큼 부서원들의 전문성 확보는 당연하다.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파견 나온 조사관들을 합해 총 14명이 주택건축민원과에서 분주히 일하고 있다.

박용택 과장은 권익위가 주택건축 분야의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한다. 작년에는 서민들, 특히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를 재건축·재개발조합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국토해

양부에 권고한 적도 있다. 물론 어떤 때는 민원인과 피신청기관의 요구가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올해 초에 권익위 위원장 주재로 조정합의하였던 부산 금정구의 주택사용승인 관련 민원이 그런 경우다.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건축이 중단되자 거주자들이 돈을 모아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 15년 전 자료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 해당 지자체는 자재시험성적서, 하자 보수보증증권 등 사용승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 불가 판정을 내렸다. 20여 차례 협의 끝에 합법적 측면보다 합리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시험성적서 대신 건물안전진단서를 제출하고, 이행강제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앞둔 민원이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주민들이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람에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런 순간마다 민원해결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느낀다는 박용택 과장. 그럼에도 민원인을 대할 때의 원칙은 분명하다.

“감정을 다스리게 해주는 일이 우선입니다. 진정성을 보여야죠.” 최근엔 민원인뿐 아니라 부서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책까지 고민한다는 박 과장은 올해 체육행사를 북악산 산행으로 결정했다. 자신은 10여년 넘게 단련된 마라톤 마니아지만 부서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에는 마라톤보다 산행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외부고객에게 만족을 주려면 내부고객도 행복해야죠. 본인이 즐겁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 즐거움을 나누어줄 수 없는 법이거든요.” 이 정도면 주택건축민원과를 찾는 민원인 모두가 해피 바이러스에 중독될 수 있지 않을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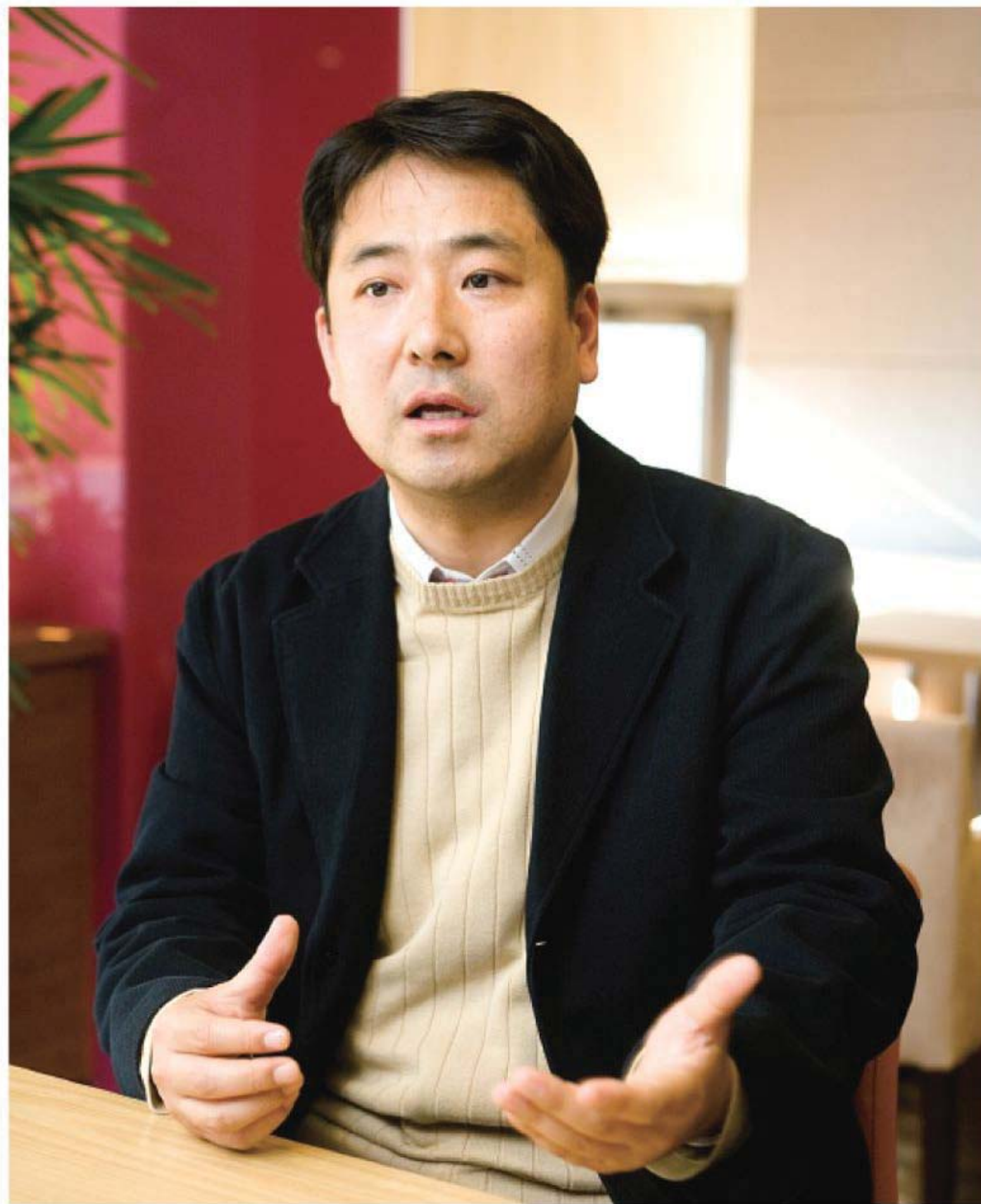
체육행사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주택건축민원과 직원들

밀양 '금호마을' 주민들의 60년 숙원 마침내 풀어나다!!

- 소방차 진입안되는 좁은 마을통로 확장·방음벽 설치키로함의 -







양심의 호루라기로 공정한 사회 실현을!

공익신고 · 부정부패 예방의 초석,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공정한 사회’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광복 65주년 경축사를 통해 밝힌 ‘공정한 사회’는 기회와 경쟁에서 불평등을 일소한다는 의미와 함께 ‘투명 사회’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부정부패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외부에선 밝혀내기 어려운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휘슬 블로어(Whistle-Blower). 우리나라에도 이들을 위한 모임이 있다.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이 바로 그것이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양심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활동하는 진정한 용기의 소유자들을 만나 보았다.

글 · 편경애 편집실 사진 · 조향진

부정부패에 맞서 양심의 소리를 낸 사람들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은 지난 2005년 1월 발족했다. 2004년 한국투명성기구에서 마련한 반부패 공로자 시상식에 모인 내부 고발인,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이 의기투합한 결과였다. 우리 사회에서 공익 신고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잠재적인 공익 신고자들에게 다차원적인 지원을 하자는 결의에서 시작된 이 모임은 현재 400여 명의 회원을 둔 국내 최대의 공익 신고자 모임이 되었다.

현재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용환 대표는 2003년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관리 허점으로 수혈감염이 일어나고 있음을 제보하였다. 당시 혈액의 검사와 관리의 부실점을 지적했지만 내부적으로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자 동료 세 명과 함께 그 사실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이를 공론화시켰다. 감사원의 집중 감사가 시작되었고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다. 이후 2004년에 혈액안전개선 종합대책이 마련되었고, 이제는 적십자사가 제공하는 혈액은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해고 위협은 물론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극과 극을 체험했지요.” 지금은 담담히 지난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에 겪은 심적 고통은 상상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래도 김용환 대표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 수혈로 C형간염에 감염된 아기의 아버지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다. “수혈감염 가능성을 제기한 적십자 내부 고발자가 없었다면 내 아이가 C형간염에 걸렸는지조차 몰랐을 것이고, 치료 시기를 놓쳐 평생 병을 안고 살아가야 했을지 모른다.”는 그 말에 새삼 자신의 행동이 옳았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1992년 당시 삼성그룹에 입사가 결정된 상태에서 양심선언을 한 이지문 부대표 또한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이다. ROTC 근무 도 중 14대 국회의원 선거 군부재자 투표과정에 공개투표와 대리투표, 여당지지 정신교육이 있었음을 폭로했다. 그의 양심선언 이후에 군 부재자투표에 변화가 생겼다. 부정을 차단하기 위해 부재자 투표 장소를 영외에 설치하도록 개선된 것이다. 이들 외에도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에는 초대 대표를 지낸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 한준수 전 연기군수, 현준희 감사원 감사비리 고발자 등 다수의 양심선언 인물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이 사회의 진정한 영웅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은 단순히 공익제보자들만이 모인 단체가 아니다. 어느 분야에서건 부정과 부패를 고발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까지 함께하는 모임이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인권보호의 의미도 있지만, 부패행위를 하면 언젠가는 신고되고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이지문 부대표의 설명은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의 취지를 재확인시켜 준다.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다. 공익신고자를 위한 상담, 부정부패 척결 교육,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법 제·개정을 위한 의견개진 활동 등이 그것이다.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은 홈페이지(www.insider.or.kr)와 전화(02-2069-2026)를 통해 상담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상담의 범위는 넓다. 조직의 부정부패로 공익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신고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물론 양심선언이나 공익신고 이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힘이 되어 준다. 법률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안정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몇 년 전 가짜 참기름 사건을 폭로한 이후 줄지에 노숙자로 전락하고 억울함을 풀지 못해 자해를 시도했던 한 공익신고자의 경우,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의 김용환 대표(우)와 이지문 부대표(좌)

함께하는 모임’을 통해 인간적인 교감을 얻었고 정신적 안정을 찾아 새 삶을 찾을 수 있었다.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에서는 또 부정이나 부패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준비하고 신고해야 할 것인지는 물론이고 신고 이후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공직자, 대기업 임직원 등 최근에는 교육 대상도 점차 늘고 있다. 모임은 법률 제·개정 등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공직자뿐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공익신고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데에도 의견개진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부패행위 신고자가 조직 내에서 따돌림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신변보장, 비밀보호 등을 담당하고 있는 권익위 보호보상과는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을 통해 현장의 사례를 취합하는가 하면 법률 제정을 추진할 때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보호보상과 김준배 과장은 “공익신고자들에게 필수적인 보호요소 등을 직접 듣고 법률안 구성에도 많은 도움을 얻었다.”며 “진정한 투명사회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보호보상과 김준배 과장(왼쪽에서 두번째)과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주요 임원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변보장과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청렴사회, 투명사회를 위한 법령이 잘 마련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크게 뒤떨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직사회뿐 아니라 일반 기업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신고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이지문 부대표는 “상담을 신청하는 사람 중에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10명 중 한 명 꼴.”이라며 “아무리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해도 개인으로서는 삶의 큰 변화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한다. ‘공익’이라는 거창한 말보다 내 가족, 친구, 나아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사회적 문제가 아닌지를 숙고한다면 결정의 방향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외부의 어떠한 지원도 없이 꾸려온 모임의 재정적 홀로서기를 위해 의인재단, 의인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김용환 대표. “공익신고자들에게 민간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며, “홀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공익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이들에게 손을 내민다는 게 우리 모임

의 목표.”라고 밝혔다. 더 많은 사람,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해 양심의 소리를 내는 공익신고자, 다른 누가 아니라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 공익신고자들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대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사회, 공정사회 실현이 시급한 이유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이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보복행위를 당한 경우, 신고자를 보호해주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적인 제도이다.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국민생활이 복잡화·고도화됨에 따라 유해식품의 제조·유통 등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가 커다란 사회적 혼란과 공공지출을 유발하고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익위가 마련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안」과 우윤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법안심사 중에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건강·안전·환경·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어 국민권익 보호와 안전 선진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다.

초고층에 살려면 ‘인공 재해’는 각오해야 한다?

빌딩풍 · 열대야 · 환경오염 물질에 쉽게 노출 ‘대책 무방비’

지난 10월 1일 부산에서 발생한 38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이후 초고층 아파트의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소방 사각지대’는 초고층 빌딩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볼 때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많다. 열섬현상에 의한 고온, 빌딩 사이의 돌풍, 오염물질 누적, 일조권 피해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높을수록 집값은 상승한다’는 부동산업계의 감언이설과 달리 층이 올라갈수록 주거환경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글 · 조득진 경향신문 <위클리경향> 기자 사진 제공 · <위클리경향>

취재의 발단은 10월 1일 부산 해운대 초고층빌딩의 화재였다. 이번 사고는 화재에 취약한 설계와 외장재, 화재 대응시스템 부재, 고층 화재 진압의 기술적 어려움 등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국내 초고층 건축물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필자의 매거진에서는 이미 2007년부터 초고층 빌딩의 위험성에 주목하고 있었다. 당시 커버스토리를 보면 초고층 빌딩의 재난 위험성과 반환경적 요소, 주변과의 부조화를 지적하고 있다. 당시 기사에선 소방방재청이 용역을 의뢰한 ‘초고층 건축물 화재절감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의 착수 보고서(2007년 10월 12일 작성)를 입수해 보도했는데, 보고서에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 증대 → 반면 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이 사실상 불가능 → 초고층 건축물 자체 내에서의 안전관리가 요구”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다.

‘강남 초고층 베란다 파손’ 제보에 기자정신 발휘

어느 날, 기자정신(?)을 발휘케 한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중, 불어 닥친 돌풍에 강남의 한 초고층주상복합 아파트 십여 채의 베란다 유리가 깨졌다는 내용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제보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그

아파트 주변의 노후한 15층 아파트 십여 채의 베란다 유리가 파손됐다는 것은 확인했다.

제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점 또한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초고층 아파트를 다시 정색하고 들여다보았다. 3년 전엔 ‘화재 무방비’가 시시비비거리었다면 이번엔 반환경적인 요소, 반주거적인 요소를 도마 위에 올렸다. 최근 몇 년 새 초고층 아파트를 둘러싼 환경문제는 ‘돌풍’이다. 이규석 성균관대 조경학과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11월 29일 수도권에 강풍 특보가 내려졌던 날 북한산 중턱 해발 455m에 있는 ‘승가사 측정소’의 순간 최대풍속은 초속 11.9m로 등산객들의 몸이 휘청거릴 정도였다. 그러나 같은 시간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서울 강남의 한 지점에서는 초속 18.9m의 바람이 측정됐다. 작은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위력으로, 이곳에서는 이후에도 초속 19m를 웃도는 바람이 불어댔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서울의 고층빌딩이 바람의 세기를 바꾼 것”이라고 분석한다. 도심 상공의 강한 바람이 빌딩과 빌딩 사이의 좁은 공간을 통과하면서 풍속이 급격하게 높아져 심할 경우 태풍과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산 해운대 화재가 순식간에 고층까지 번진 것이나 지난 9월 2일 곤파스가 우리나라를 강타했을 때 서울 도심의 초고층 빌딩 주변 수천 그루의 가로수가 뽑히거나 부러진 것도 이와 같은 현상 때문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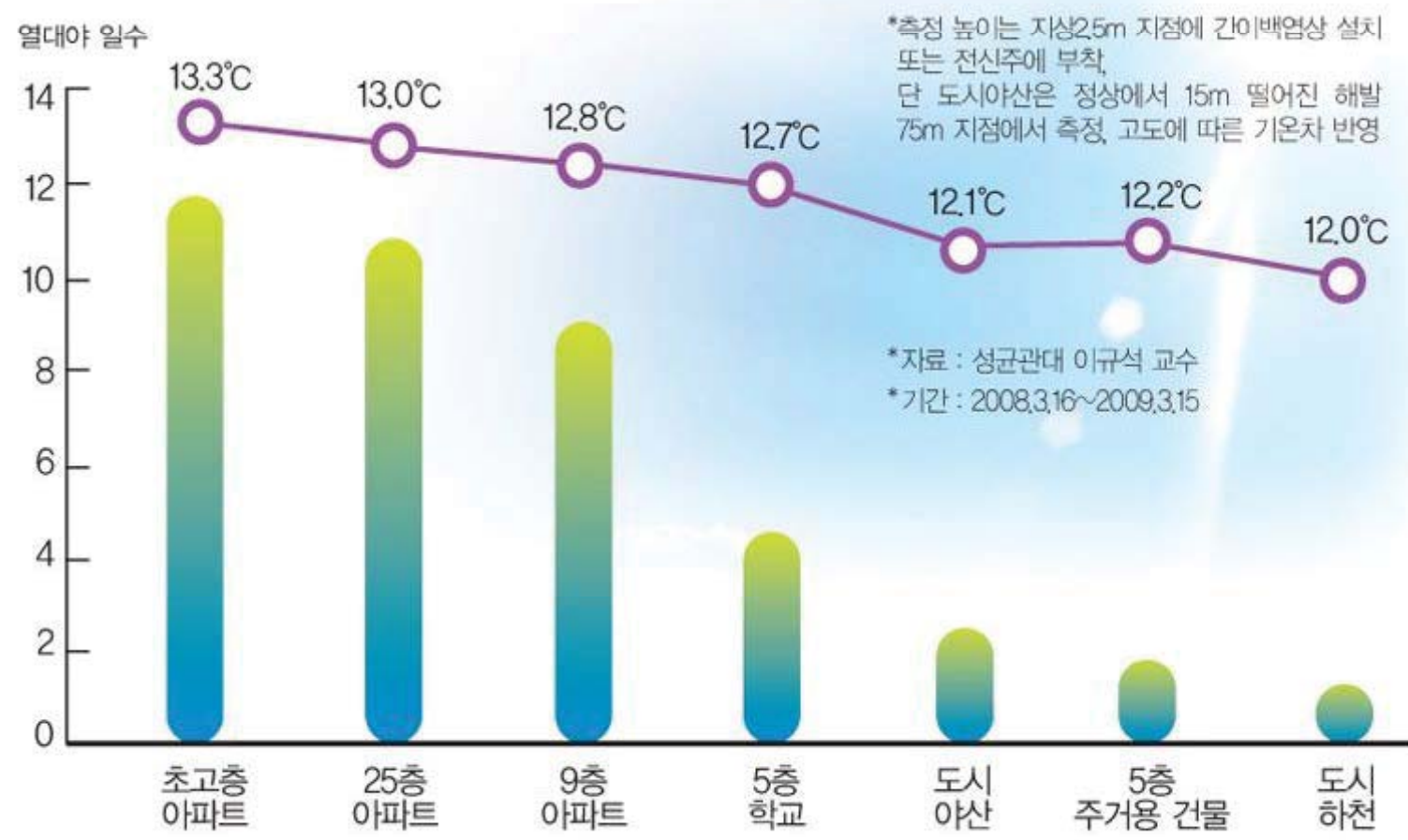
학계에서는 이를 ‘빌딩풍’ 또는 마릴린 먼로의 치마를 들춘 지하철 환기구 바람에 빗대어 ‘먼로풍’이라고 부른다. 이규석 교수는 “미국에서는 고층건물 주변의 순간 돌풍에 의한 노인들의 낙상 사고가 빈발하자 빌딩풍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도곡동에서 만난 한 상인은 “이 동네 매장이 가판을 펼치지 않는 이유를 아느냐?”며 “미관에 대한 고려도 있지만 갑자기 불어 닥치는 돌풍 탓에 물건이 날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고층건물을 지을 때는 높이(100m 이상)와 일정 연건축면적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반경 500m에 대한 빌딩바람 영향평가가 의무화돼 있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일조권 분쟁 · 화재대책 걸음마 수준

초고층 아파트에서 겪는 폭염과 열대야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규석 교수가 2008년 3월 16일부터 2009년 3월 15일까지 서울 강남지역 초고층 아파트와 주변 6곳의 기온 추이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고층 아파트의 열대야 일수는 연간 13일로, 인근 학교의 5일, 도시 야산의 3일, 도시 하천의 1일보다 압도적으



● 측정지점별 열대야 일수 & 연평균 기온



로 많았다. 특히 건물 사이가 좁고 건물이 높을수록 연평균 기온이 높고 열대야 발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기온은 55층 초고층 아파트 13.3도, 이를 둘러싼 25층 아파트 13.0도, 9층 아파트 12.8도, 5층 학교 12.7도, 5층 주거용 건물 12.2도, 도시 야산 12.1도, 도시 하천 12.0도를 기록했다. 측정지점 7곳의 연평균 기온이 건물 높이와 정확히 반비례한 것이다. 이 교수는 “초고층 아파트는 건물 자체가 통유리라 여름엔 사우나와 다름없다”며, “상공풍 때문에 안전상 창문을 15도 이상 열지 못하면서 환기가 되질 않아 음식냄새가 심하고 곰팡이가 생기는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일조권 또한 초고층아파트를 둘러싼 오랜 분쟁거리다. 이는 아파트 단지 주변 주민들과의 불화뿐 아니라 같은 단지 내에서도 초고층이 만들어낸 그늘 탓에 입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이규석 교수는 “독일은 보름 등 일부 주에서 높이 20m 이상의 건물에서 특히 어린이들이 살지 못하게 강력히 권고하는 등 고층 건물을 주거용이 아닌 낮에만 머무르는 상업용 건물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나치게 밀집돼 있어 일조권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또한 가장 높은 요코하마 랜드 마크타워(296m)부터 25위의 산노빌딩(194m)까지 모두 상업용 건물이며, 미국에도 뉴욕 맨해튼의 고층 아파트들이 있지만 대부분 주중에만 머무르는 집무 겸용 개념을 지닌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부산 해운대 화재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 초고층 빌딩의 경우 화재 대책은 초보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초고층 빌딩 화재의 특징은 고층일수록 불길이 상승기류를 타고 급속하게 번지는 ‘굴뚝 효과’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동 진화’가 중요하지만, 초고층 빌딩 자체의 소방시설이

나 소방방재청의 장비는 턱없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화재에서도 일반 소방차는 무용지물이었고, 펌프차의 살수 범위는 15층 높이가 한계였다. 또 고층화재 진압에 쓰이는 굴절사다리차나 고가사다리차도 20층 이상에선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헬기가 출동하거나 옥상에서 로프를 연결해 구조작업을 펼쳐야만 하지만 초고층 아파트는 바람의 영향을 받기 쉬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법규 시행 세칙 없어 유명무실

박형주 경원대 소방시스템관리학과 교수는 “초고층 건물은 단순한 빌딩이라기보다는 수직으로 세워진 도시”라며,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크린클러는 단순히 화재를 지연시키는 도구일 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패닉현상. 박 교수는 “초고층 빌딩에서 5분 이상 피난이 지연되면 피난자들이 피로를 느끼고 패닉에 빠져 압사사고 같은 게 일어나기 쉽다”며, “실질적 방재·재난 대책을 제도화하고, 주민들을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초고층학회(CTBUH)는 초고층 빌딩을 50층, 22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내의 초고층 빌딩은 39곳. 건축업계에서는 초고층 빌딩, 특히 초고층 아파트의 출현을 인구의 대도시 집중화 현상에서 찾는다. 대도시 집중화가 심화할수록 건축물의 양식이 대형화·복합화 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특히 고용 및 인구 유입 효과, 인근 주거지 가치 상승 등 다양한 파급력을 갖는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신규 초고층 아파트 개발사업은 주춤한 상태다.

문제는 고층 주거문화가 그 안에 사는 거주민뿐 아니라 주변에 심각한 환경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에 그치고 있어 갈수록 초고층 아파트와 관련한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규석 교수는 “좁은 땅에서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싶다 보니 기형적인 초고층 주상복합이 건설되는데, 과연 초고층 주거건물이 적합한 주거환경인지 심각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만 수조 원에 이르는 초고층 빌딩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으려면 주변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정밀한 수급 예측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도시개발론자는 넘치지만 도시환경론자는 드물다’는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취재원이 한정되고, 자료 또한 만족지 못할 수준이었다. 유럽에선 고층 아파트를 혈어저층으로 짓고 있다는데, ‘고고익선(高高益善)’만 바라 볼 문제가 아니라고 소리내어 말하고 싶다. 🌍

발레리노 이원국

발레리노, 팔채 위로 불꽃처럼
뛰어오르다



불혹의 나이를 넘어섰다. 혹자는 무대를 내려올 나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나이'를 넘어섰다. 그리고 다시 경계를 넘본다. 세계적 발레단에서 수석무용수로 활동하던 그가 이제는 한 단을 내려서서 대학로 소극장 무대에 나선 것이다. 관객과 가까워지기 위해,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그러자 그의 시선에 객석이 들어왔다. 이젠 객석에 앉은 관객도 그를 '40대의 발레리노'라 기억하지 않는다. 타는 열정으로 숨 막히는 공연을 펼치는 발레리노로 기억한다. '브라보'를 외치는 관객의 감탄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글 · 편경애 편집실 사진 · 조항진

뚝 떨어진 기온 탓인지 몸을 녹여 줄 그 무언가를 찾아 삼삼오오 저녁식사 자리를 찾아드는 월요일 저녁. 혜화동에 위치한 성균소극장을 찾았다. 월요일마다 이 소극장 무대에 선다는 마흔 넷의 발레리노 이원국 단장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관객도, 무용수도 없는 소극장은 헛헛하리만치 쓸쓸했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메마른 듯한 소극장. 천장은 낮고 바닥은 반들반들 윤이 났다. 이런 무대에서 과연 발레 공연이 가능한 걸까?

발레리노, 관객과 체온을 나누다

조명으로 막이 열림을 알린다. 말쑥하게 차려 입은 단장이 관객 앞에 나선다. 노원 이원국발레단의 이원국 단장이다.

“우리는 참 부담스러운 거리에 있어요.” 객석에서는 웃음이 쏟아진다. 농담이지만 농담만은 아니다. 항상 관객석보다 한 단 올라선 무대에서 공연하던 무용수들에게 소극장의 거리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20년 넘는 시간을 무대에 바친 베테랑에게도 쉬울 수만은 없는 거리. 공연이 시작되고 무용수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지젤〉, 〈해적〉, 〈카르멘〉 등을 엮어 갈라 형식으로 선보이는 공연이다. 첫 무대는 〈지젤〉 전막 중에서 ‘폐전트’. 중학교 3학년인 박정호 군이 나선다. 1분짜리 솔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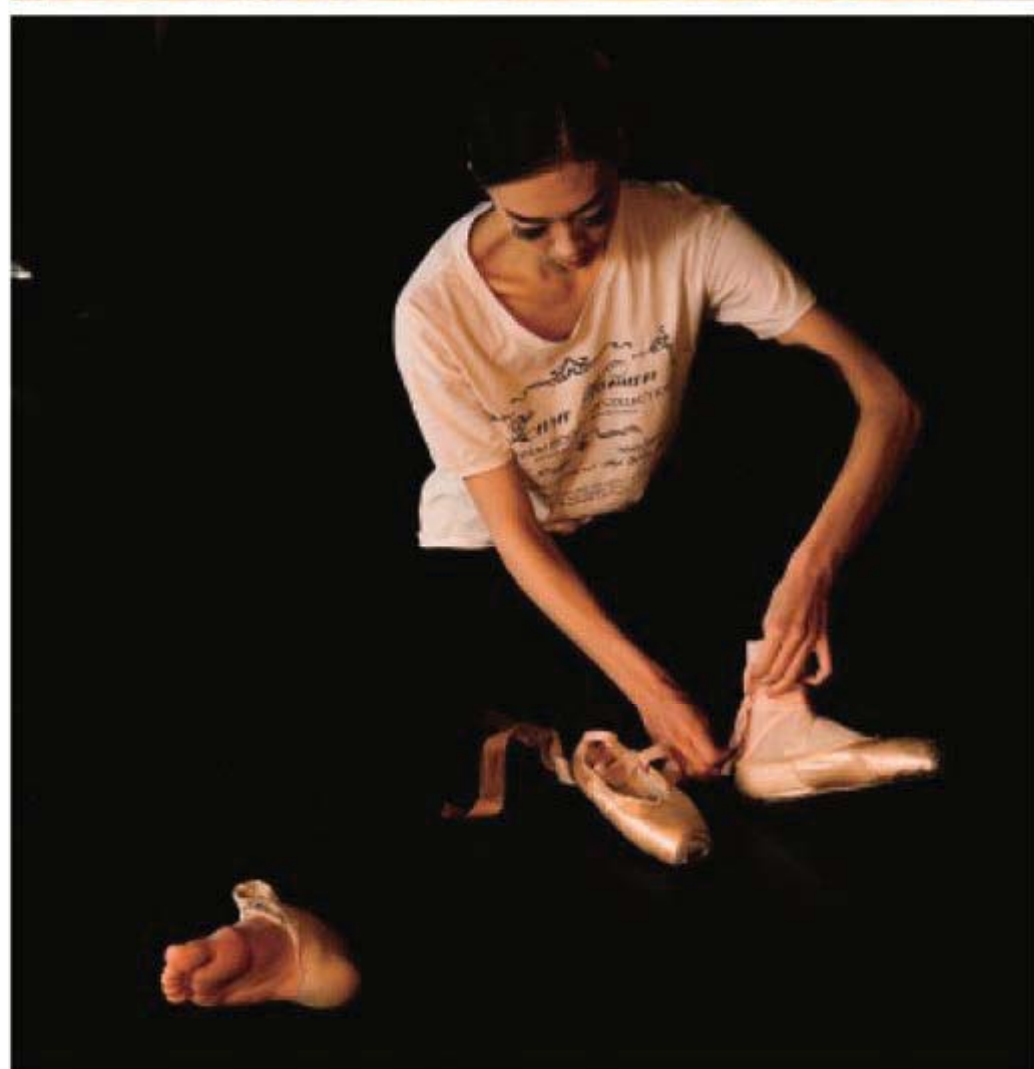
연을 위해 한 시간 전부터 연습할 공간도 없는 소극장에서 몸을 풀고 연습을 했던 학생이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관객들도 덩달아 긴장한다. 하지만 걱정은 잠시, 그는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에 몰입한다. 다행이다. 연기를 무사히 마치고 쉬는 안도의 한숨까지 객석으로 전달된다. 관객의 박수는 그를 안도하게 하고, 다시 그에게 더 높은 비상을 약속한다. ‘조금 더 멋진 공연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라며. “저는 스무 살에 시작했지만, 이 친구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발레로 서울예고에 합격했어요. 무대에 많이 서는 것이 이 친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관객들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무대가 될 겁니다.” 했던 이원국 단장도 조금은 긴장하지 않았을까? 이원국 단장에게는 이 작은 무대가 ‘그리 어렵지 않은’ 무대일지 모른다. 하지만 무대를 오르기 전의 설렘,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픈 열정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가 어린 발레리노에게 무대를 허락한 이유가 바로 그거다.

열정이 가장 큰 희망이다

‘한국 발레리노의 교과서’라 불리는 이원국 단장. 스무 살에 발레를 시작해 24년간 무대에 서 온 그는 유니버설발레단, 국립발레단, 루마니아 국립발레단, 러

시아 키로프발레단 등 세계적 발레단에서 활동했다. 유니버설발레단과 국립발레단에서는 수석무용수였고, 해외 발레단에서는 객원무용수 중에서 주역과 수석을 도맡았다. 그런 그가 퇴임식까지 마치고 나서 다시 나선 무대는 조그만 소극장이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무용수 중에는 몇 년이나 무대를 떠났던 이들도 있다. 6년간 고깃집과 카페를 운영했다는 고훈 씨도 그 중 하나다. 그에게 다시 꿈을 꾸게 한 것도 이원국 단장이었다. “발레를 끝까지 해보겠다는 열정으로 다시 발레단에 들어왔어요. 다른 일을 하면서도 계속 무대가 그리웠거든요. 단장님이 문을 열어 주셨죠.” 하는 발





레리노 고훈 씨는 “이원국 단장님처럼 마흔이 넘어도 무대에 설 수 있는 발레리노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한다. 심지어 발레를 하기 위해서 후배인 송한얼 씨, 김동우 씨와 함께 합숙 야닌 합숙생활까지 하고 있다. “일요일까지 모두들 나와서 연습해요. 쉬는 날이 없죠. 쉬라고 해도 다들 연습하러 나오는 걸요.”라는 발레리나 최예원 씨의 이야기는 무대 위에 뿌린 이원국 단장의 열정이 단원들에게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자양분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루 전날 6회에 걸친 전막 공연을 마치고도 다시 월요일 소극장 무대에 서기 위해 찾아드는 단원들도, 말쑥하게 차려 입고 해설을 할 때와는 달리 공연에 나서면서 빛이 나던 이원국

단장도, 멈추지 않는 열정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박수갈채 위로 비상하다

그는 2004년 국립발레단을 나와 민간발레단을 창단했다. 국내에 민간발레단이 그리 많지도 않거니와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열악’ 그 자체다. 하지만 이원국발레단은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돼 노원 이원국발레단으로 거듭나면서 자생의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에도 다시 우수발레단으로 선정돼 한 단계 한 단계 정상으로 가고 있다. 관객과 가까이 만나는 월요일 소극장공연은 물

론이고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도 꾸준히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대중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소극장을 선택했고, 3년 동안 한번도 쉬지 않고 월요공연을 해 왔어요. 처음 이원국발레단을 창단할 때에는 1년에 50회 공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연 150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지요.”라며 이 단장은 흐뭇한 웃음을 보여준다. 그는 관객과 가까워지고 싶다고 했다. 이 정도라면 그의 마음도 흡족한 것일까? 그런데도 아직 그의 열정은 자신의 꿈을, 그리고 관객을 들끓게 한다.

그가 무대에 서면 무대의 크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극장의 천장은 낮아 보이지만 객석에 땀을 흘리며 뛰어오르는 그에게만은 더 높이 허락되는 듯하다. 그는 관객의 박수갈채를 넘어 더 높이 뛰어오르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 다시 꿈을 꾸다. 아니, 꿈을 설계한다. “5년 안에 이원국발레단을 메이저급 발레단으로 만드는 것,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발레단으로 만드는 것이 꿈이에요.”

사실, 그는 우리나라를 러시아보다 뛰어난 발레 종주국으로 키우고 싶다. 바가노바 발레아카데미 같은 시스템을 갖추며 프랑스를 뛰어넘은 러시아를 보면 결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제는 그의 열정과 실력을 이어받은 발레리노들도 속속 무대에 서고 있다. ‘포스트 이원국’으로 불리며 유니버설발레단 객원무용수로 활동 중인 김기민 군도 그의 제자다. 물론 모두들 한국이 ‘발레 종주국’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들 한다. 사실 아직 멀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나이를 넘어선 ‘이원국’이라는 발레리노가 있고, 경계를 넘어서는 그의 열정이 있다. 그리고 그의 꿈과 열정에 박수를 보내는 관객이 있는 한, 그 희망은 시들지 않을 것이다. 🌈



더 투명한 세상 더 행복한 미래,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행/복/누/림



Eco를 만나는 Global 산책	34	자일리톨보다 더 좋은 물맛을 가진 산타클로스의 나라, 핀란드
브라보! 대한민국!	38	우리 문화유산 길러낸 보배로운 흙, 황토
화가의 숨은 그림 찾기	41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박연폭포가 그려낸 주체적인 우리 미감
생활법률 110	44	매우 편리한 신용카드, 보다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통째로 보는 책 한 권	46	철학, 개그처럼 즐겨라!





호수의 나라, 핀란드에는 6만여 개의 크고 작은 호수가 있다.

자일리톨보다 더 좋은 물맛을 가진 산타클로스의 나라, 핀란드

북유럽 발트 해 연안에 위치한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 핀란드. 내가 이 나라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어려움을 겪은 우리와 비슷한 동변상련의 국가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흔히 핀란드라는 나라를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노키아 휴대폰이나 충치 예방에 좋다는 자작나무에서 채취한 천연 감미료 자일리톨을 떠올린다. 그러나 핀란드가 세계경제포럼의 환경지속지수 세계 제1위이며 국가경쟁력 세계 제1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국가 청렴도 세계 제1위라는 사실에는 고개를 가우뚱한다.

글·사진 최도성 여행작가, 칼럼니스트



핀란드의 전통 축제

팔 색조 같은 매력과 흰색 백자가 연상되는 핀란드를 방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직항노선을 가진 핀 에어에 몸을 싣고 핀란드의 수도인 헬싱키로 향했다. 비행기는 9시간 30분을 날아 헬싱키 반타공항에 멈췄다. 공항을 나서자 처음 나를 맞이한 건 ‘핀란드’를 생각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던 아름다운 북구의 여인도 푸근한 모습의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당신은 핀란드에서 페트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영문 문구가 쓰여 있는 광고판이었다. 이 말은 수돗물에 자신 있다는 환경국가로서의 자존심이 서린 표현일 테다. 이와 더불어 깨끗한 자연환경에 견줄만한 핀란드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도 우연히 엿볼 수 있었다. “따뜻한 맥주와 찬 샌드위치가 아니라면 위법이다”라는 재미난 문구다. 찬 맥주 한 잔과 따뜻한 샌드위치 한 조각조차 뇌물에 해당된다는 말로 신참 공무원들의 윤리강령이기도 한 말이다. 보면 볼수록 다가가면 다가가수록 눈처럼 새하얀 국가가 핀란드이며, 산타클로스의 넉넉한 인심을 가진 나라가 핀란드라는 사실에 전혀 의심이 가지 않았다.

이번 핀란드 여행은 가장 남쪽에 있는 수도 헬싱키와 동화작가 토베 얀손(Tove Jansson, 1914~2001)이 창출해낸 북구의 마스코트 무민(Moomin)의 고향 난탈리(Naantali) 마을과 중부도시 탐페레(Tampere)를 지나 산타클로스 마을이 있는 북부 로바니에미(Rovaniemi)를 돌아볼 예정이다.

고된 시련의 역사 그리고 흑한·백야의 거센 자연의 힘에도 절대 굴복치 않다

핀란드는 우리나라 남한의 3배 크기 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있지만 인구는 500만 명이 채 안 된다. 게다가 국토의 70%가 자작나무, 떡갈나무를 비롯해 침엽수가 뒤덮인 산림지대이고 국토의 10%가 6만여 개의 호수와 수많은 섬을 가진 최적의 자연환경을 가졌기에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다.



알바 알토가 설계한 산타의 집



오른쪽 붉은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 크리스마스 직전에 배달해준다.

화장실 숫자만큼이나 사우나 시설이 많고, 날씨가 어느 정도 풀리면 가장 먼저 겨울 내 사용하지 않았던 별장을 청소하느라 모두의 손길이 바쁘다.

이들에게 가장 좋은 휴식은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그야말로 원시성을 가진 숲 속 별장에서 자연과 융화되어 지내는 것을 행복으로 여긴다. 이렇듯 핀란드인은 환경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환경 아래서는 부와 명예보다는 자연과 대화하는 사색의 시간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었을 테다. 이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그들의 기질을 다소 엄숙하게 만든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한편으로 이러한 원동력은 상호간의 신뢰를 돈독하게 해 오늘날의 핀란드를 국가경쟁력과 청렴도 순위에서 세계 1위 국가로 끌어 올렸다. 어쨌거나 핀란드는 매력의 나라임이 틀림없으며 일생에 한번쯤은 꼭 방문해 볼 가치가 있는 나라다.

하늘이 내린 천연의 아름다움 속에 핀 동화 속 산타의 나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 핀란드를 지난여름 방문한 적이 있으나 부득이 겨울에 다시 찾은 이유는 눈 내린 산타클로스 마을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바람은 로바니에미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헬싱키에서 끝없는 자작나무와 북구 특유의 침엽수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호수. 그 위를 날고 있는 새들을 친구삼아 열차로 9~10시간(탐페레에서는 7~8시간)정도 북쪽을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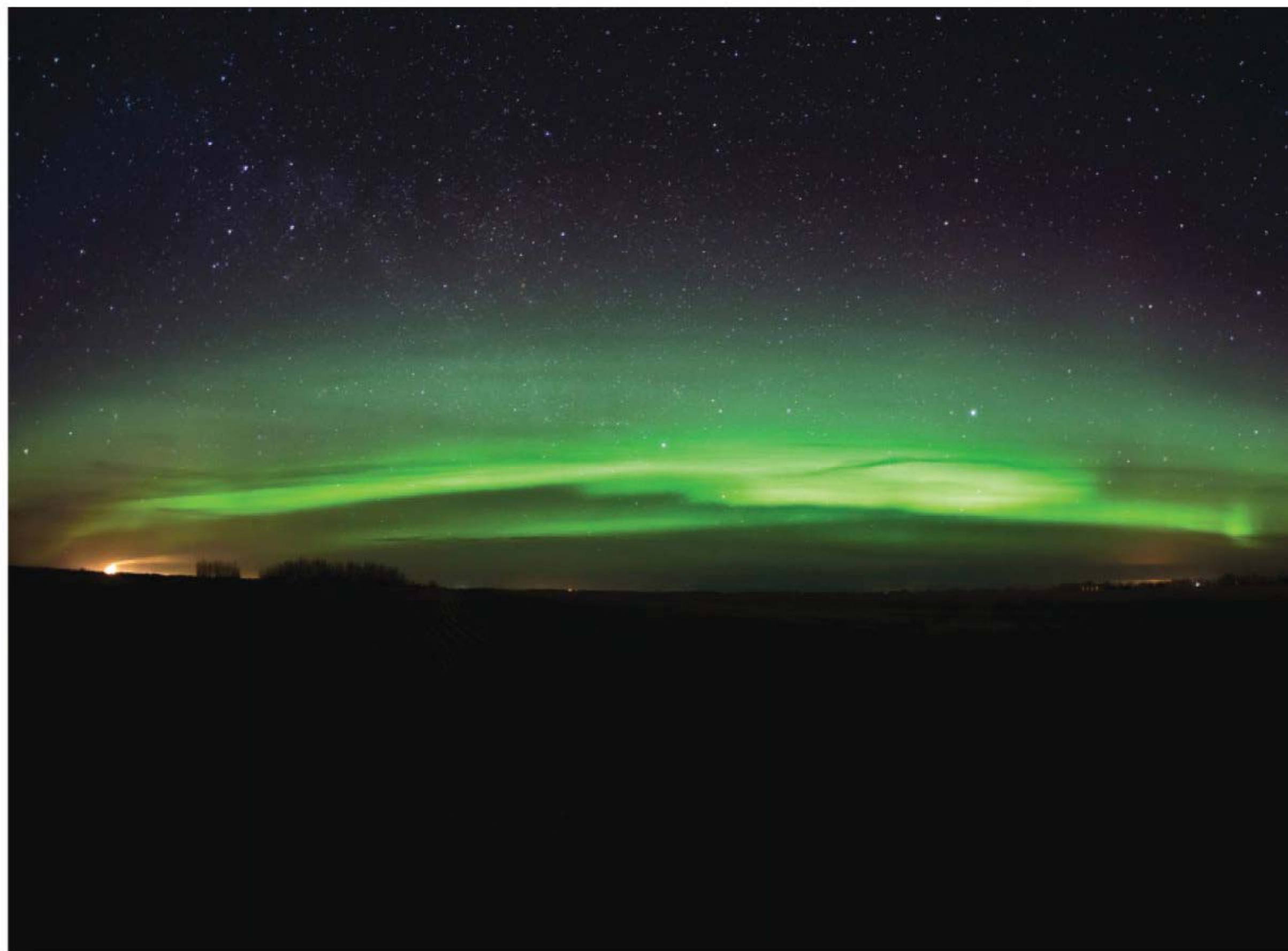
지도상에서 보면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국경을 이루고 서쪽으로는 스웨덴과 경계를 짓고 있다. 이런 지정학적 요인은 핀란드를 600년간 스웨덴의 속국으로 살게 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 말기인 1917년에는 마침내 독립하는가 싶더니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바로 소련의 지배에 들어갔다. 이후 1944년, 시련 끝에 마침내 독립된 자주국가로서 다시 서게 된 우리나라와 비슷한 근대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런 정치적 소용돌이를 거친 탓인지 핀란드인의 첫인상은 무뚝뚝하고 진지하다. 그들에게 표정이 너무 엄숙하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침묵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다’라는 말로 방어한다. 침묵이란 소통의 실패가 아닌 사회 작용의 중요한 일부라고 여기는 것이다. 아마 이러한 성향은 겨울엔 혹한과 하루 내내 태양 없이 지내야 하며, 여름은 밤이 없는 백야의 자연환경 탓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나라



산타 우체국에는 12개 국어로 산타할아버지에게 온 편지에 답장을 써 주는 직원이 근무한다.



북극권, 일년 중 하루 이상 해가 지지 않고 하루 이상 해가 뜨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북극지방의 겨울철에만 볼 수 있는 빛의 향연 오로라(Aurora)

달리다 보면 작은 로바니에미 역에 도착한다. 이 역에서 8km 떨어진 곳에 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로망인 산타클로스 마을이 있다.

산타마을은 여름은 녹색의 숲으로 겨울은 흰 눈으로 온천지가 하얗게 되는 동화마을이다. 이 마을의 공식 첫 관광객은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인 엘리노어 루즈벨트(Eleanor Roosevelt, 1884~1962)여사였다고 한다. 이 마을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포화에 휩싸여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이 때 마을 주민들과 세계 어린이들의 꿈을 되살린 이는 핀란드의 유명한 건축가 알바 안톤(Alvar Aalto, 1898~1976)이 었다. 그는 마을을 복원하기로 하고 산타 할아버지의 모자를 본 따 산타기념관을 설계했다. 이 건물에는 사무실과 도서관, 기념물을 파는 상점과 그 무엇보다도 유명한 산타 우체국이 있다. 이 우체국에는 12개 언어로 세계의 어린이들로부터 온 편지에 답장을 해주

는 비서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보좌하고 있다. 재미난 것은 우체국 안에 노란 겨자색 우체통과 빨간색 우체통이 나란히 놓여 있는데, 노란색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 즉시 배달되며 빨간색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 한동안 보관해 두었다가 크리스마스 직전에 해당 주소로 배달해준다.

또 이 마을을 사람들이 겨울에 찾는 까닭은 남극이나 북극 인접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태양의 선물, 오로라 현상 때문이다. 오로라 현상이란, 태양에서 방출된 플라스마가 지구의 공기와 반응하여 빛을 내는 물리적 작용으로 주로 겨울철 새벽녘에 볼 수 있는 자연이 만들어 내는 불꽃놀이이다. 불기둥이 큰 것은 1000km에 이르기도 한다. 1달에 한 두번꼴로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곳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고 밤잠을 설치곤 한다. 이 마을이 북극권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산타의 집 앞 보도 위에 새겨진 북극권을 나타내는 북위 66° 32' 35"의 표식을 통해서이다.

‘아름다운 자연의 나라 핀란드’를 떠날 시간이 되자, 자작나무에서 이는 찬바람과 바다처럼 넓은 호수에 비치는 옅은 햇살마저 자연의 고마움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했다. 본질의 가치를 가장 잘 깨닫게 되는 때는 아마 그것과 멀어지려고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어쨌든 표정은 다소 무뎡뎡할지라도 신뢰를 무엇보다도 중시 여기는 청렴성 때문에 그들은 세계 제1차, 제2차 대전에서의 참화를 극복할 수 있었고 세계 제1위의 국가경쟁력을 지닌 나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이리라. 핀란드의 오늘을 만든 드높은 그들의 국민성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 없다. 🌍

우리 문화유산 길러낸 보배로운 흙, 황토

황토방, 황토이불, 황토아파트, 황토화장품 등 고단한 현대인의 일상을 황토가 치유하고 있다. 본디 몸과 땅이 둘이 아니라는 신토불이는 우리 민족정신의 핵심으로, 예로부터 황토는 우리 산천과 문화유산을 길러냈다. 그 본성이 유순하고 정직하여 독성과 여타의 물질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 신비로운 흙 황토. 생명을 살리는 황토의 유래와 효능을 알아보자.

글 · 김지영 편집실 사진 제공 · 평민사(황토의 신비), 참조 - '황토의 신비' (류도옥 저)



황토로 만든 돌담길 운치가 있다.



황토로 만든 장독대



우리 생명을 잉태하는 황토

우리 땅 한반도는 토양의 30% 이상이 황토지대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서북부 황토지대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로 편서풍을 타고 날아 온 황토 모래와 우리 땅에서 생성된 황토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황토지대 위에서 우리의 문화가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인돌이 많은 전북 고창읍성을 비롯하여 국내외 유적 발견지대는 거의 황토대이다. 1994년 12월 진해시 용원에서 2~4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최고의 가야시대 집단생활 유적지가 발견되었는데 그 역시 황토대이다. 황토대는 대개 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환경이 좋았다. 황토의 너른 품이 인류 삶의 터전이 되어준 것이다.

흙이 神이고 흙이 福이다

우리 선조는 삼한시대부터 자연스럽게 흙을 이용해서 생활했다고 중국의 <후한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마한의 경우 흙집을 지어 살았으며 북방 부여 옆 읍루 사람들은 혹독하게 추운 산림 속에서 토굴을 파고 살았다. 삼국시대에는 산천 신앙이 뿌리 깊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인들이 산천대지에 고사를 지냈으며, 신라의 역대 왕들은 죽고 난 후에 화장하여 모국 산림과 산천에 뼈를 뿌렸다고 한다. <한국문화상징사전>에 의하면 우리나라 흙은 전통 무속과 민속의 대상으로 대지를 지모신으로 신앙시하고 있다. 지모는 만물의 근원을 의미한다. 흙은 기복의 대상이고 재산이라고도 하므로 흙을 쓸어버리면 복이 나간다고 여겨서 마당을 쓸 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쓸었다. 백제 초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용관은 우리 선조들의 자연회귀 사상의 극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이다. 옛 노인들은 망팔(望八)이 되

면 뉘두리 삼아 ‘흙냄새가 고소하게 느껴지니 저 흙으로 돌아가련다’ 라고 독백해보기도 했다.

또한 예로부터 황토의 누른색은 황색이라 하여 왕실에서는 옥과 함께 소중하게 여겼다. 황룡, 황운, 황기 등 그 빛깔에서 귀함을 취하여 신앙화했던 것이다. 고려 혜종 비빈 임씨가 태어날 때 아버지의 태몽에 온 집안에 황색깃발이 나부꼈는데, 꿈대로 장차 국모가 되었다고 한다. 토식의 기록도 남아 있다. 조선 선조 갑오년에 대기근이 들었는데 황해도 봉산 땅의 진흙이 밀가루와 같이 부드러워 이 진흙 70%에 쌀 30%를 섞어 떡을 해먹어서 기근을 면했다고 하며 이것을 먹어 지병도 앓지 않았다고 전한다.

위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겨레에게 흙은 단순한 흙이 아닌 성토(聖土)였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궁중과 민간 양쪽의 합일된 풍습으로 이어져 온 자연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우리 민족의 ‘흙의 윤리’가 천지인 사상으로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내 몸에 맞는 흙, 생명 살리는 황토

황토는 정지를 소생시킨다. 옛사람들은 황토방에서 생활하면 몸의 독을 해독하고 정액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고대광실에 회벽으로 단장한 부잣집엔 손이 귀하고 초가삼간 황토로 만든 흙집에 사는 서민들이 다산한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황토의 권위자 류도옥 선생은 환경오염으로 죽어가는 생명체에 관심을 갖고, 35년을 황토와 더불어 실험한 결과 황토의 신비를 증명해냈다. 해마다 번식력이 약해지는 수컷 잉어를 관찰하니 복부는 딱딱했고 정소는 굳어 있었다. 그날로 못에 황토를 투



주거환경으로 으뜸인 황토로 만든 집



혹한기의 추위라도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흙의 온기를 느낄수 있다

입했고 다음해부터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했다고 한다. 축산업자는 물론 양계업자들도 황토를 사용한 결과 산란율이 좋아지고 달걀의 피막과 껍질도 두꺼워지고, 맛도 좋아져 시장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황토는 주거환경으로도 으뜸이다. 예부터 그랬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는 흙집 이야기가 나온다. “겨울철 화초와 호박을 얼지 않게 보관하는 데 좋고, 땅 속으로 몇 자 깊이로 파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부녀자들이 길쌈하기 좋고, 겨울철 혹한의 추위라도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흙의 온기가 마치 봄철 같아 손이 얼어터지지 않는다.”고 했다.

속도지상주의와 기계문명 틈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황토방은 더욱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황토는 찜질방, 아파트 등 건축자재로 애용된다. 황토방은 적당한 습도 조절과 에어컨 구실을 해주어 다음 날도 맑은 정신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 옛날 궁중에서도 임금이 몸에 이상이 생기면 황토방에 들어가서 황토 기운을 쏘이고 나았다고 할 정도로 심신을 상쾌하게 해준다.

지장수로 먹고 씻고 기르고 고치고

황토를 말할 때 지장수를 빼놓을 수 없다. 황토를 물에 풀면, 황토는 가라앉고 위로는 누르스름한 색을 가진 물이 뜨게 되

는데 이것이 지장수다. 지장수는 <본초강목>, <향약집성방>등의 의서에서 말하는 43종의 물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꼽힌다. 맛은 달고, 기는 차가우며 독이 없다.

해독능력, 자정능력이 있어 채소나 과일에 잔류된 농약을 씻어내는 데도 화학세제보다 안전하다. 생선찌개나 요리할 때 지장수를 쓰면 비린내와 잡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지장수로 시험 재배한 콩나물, 숙주나물, 무순, 메밀순, 돌미나리 등은 숙성하게 자라며 맛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이미 발명특허가 난 상태다. 또한 식수로 지장수를 이용하고 지장수로 목욕을 하고나면 기분이 상쾌하고 안광이 밝아지며 피부가 윤택해진다. 황토의 기가 몸 속에 스며들어 혈류의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지장수는 또한 가려움증 환자나 신생아 태열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험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처럼 황토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에게 친화력을 갖고 있으며 부작용은 거의 없다. 특히 요즘은 그 효능이 널리 알려져 황토화장품, 황토온돌, 황토찜질방, 황토용기, 건축자재 등을 통해 전체 국민의 30~50%가 황토를 이용한다. 첨단테크놀로지 시대에 여러 가지 손상된 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책으로 ‘생명물질’ 황토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향후에도 황토는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정화제’로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박연폭포가 그려낸 주체적인 우리 미감

일본 오사카에는 동양도자박물관이 있다. 말 그대로 동양의 도자기 명품만을 모아 놓은 곳이다. 우리나라의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도 100여 점 이상 소장 돼 있다. 그 중에는 일본이 국보로 지정한 걸작도 상당 수 포함돼 있다. 이곳은 필자에게 특별한 인연으로 남아 있다. 우리 고유의 미감이 얼마나 탁월한지 깨달음을 얻은 곳이기 때문이다.

글 · 전준엽(화가, 성곡미술관 전 학예연구실 실장) 사진 제공 · 중앙북스(화가의 숨은 그림 읽기),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금동반가사유상, 국보 제78호, 삼국시대 7세기 전반

15년 전 이곳을 처음 찾았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우리 미감이 독특하다고 그래서 우수하다고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격이 다른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 아시아 국가의 도자기는 중국 도자기와 비슷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었다. 중국이 자랑하는 당나라시대의 요란한 색채와 과장된 형태의 도자기(당삼채)에서 나온 미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도자기는 한 차원 높은 미감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심지어 그곳에 우리나라 도자기와 아시아 각국의 도자기 두 부류만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그런데 이 ‘느낌’이 필자 개인의 것을 넘어 세계인의 것이 될 거라는 행복한 상상을 한다면 너무 국수적인 생각일까.

로댕보다 앞선 ‘생각하는 사람’,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그런 확고한 믿음을 불러일으킨 작품이 국보 제83호로 지정된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다. 이 작품은 몸체가 풍만하지는 않지만 충만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생명력 넘치는 어린 아기의 몸에서 선을 따왔기 때문이다.

‘생각’이라는 추상적 주제를 인체로 나타낸 반가사유상은 모나리자의 미소를 뛰어넘는 신비한

미소, 유려한 선으로 단순화시킨 세련된 형태, 손가락 발가락 등에서 보이는 섬세한 움직임으로 시대를 넘어서는 감동을 주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다. 무엇보다도 맑고 청아한 생각의 이미지가 잘 나타나 있다.

그런 생각은 걸림이나 막힘이 없는 정신 상태를 말한다. 군더더기 없이 물 흐르는 듯한 형상으로 이런 淸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입체를 나타내는 조각임에도 선의 느낌이 도드라져 보인다.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선의 움직임이 빼어나기 때문이다. 분명히 변형된 형태인데도 과장이 없다. 형태를 설명하는 선은 거의 직선에 가깝게 정제된 곡선이다.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린 선이다. 그런데도 힘이 빠져 나가지 않는다. 손 끝 발 끝 같은 데서 맏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미술에 특별한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예술의 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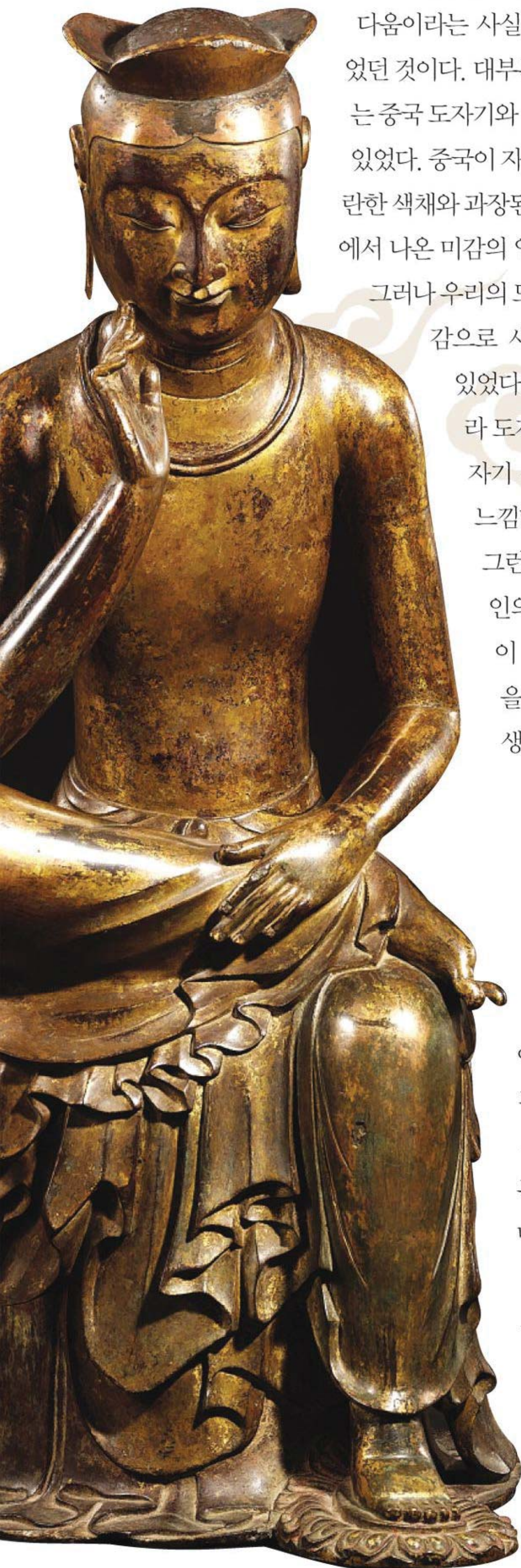
이 걸작은 당시 일본에도 영향을 주어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제작되었다.(일본 아스카시대, 목조반가사유상, 교토 교류지) 독일의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가 보고 한 눈에 반했다는 바로 그 조각이다. 나무로 만든 것인데, 우리의 금동불에 비하면 한 수 아래로 보인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고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 있다. 야스퍼스가 오리지널을 보았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란 주제는 19세기 프랑스 사실주의 조각가 로댕에 의해 세계적으로 알려졌는데,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보다 자그마치 1천 2백여 년 후에나 제작된 것이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사실적인 모습으로 고뇌에 가득 차 있다. 단테의 ‘신곡’을 보고 감동하여 만든 것이라 한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꼭대기에 앉아 있는 인간의 모습인데, 지옥의 고통을 보고 고뇌에 찬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지옥은 어디일까. 로댕의 기질로 보면 아마도 현실일 것이다. 그러니까 온갖 현실적 고통에 시달리는 인간의 생각을 생생하게 드러낸 셈이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육체를 과장 없이 표현한 로댕의 솜씨 역시 일품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로댕의 작품이 예술성 높은 조각으로 대접받는 동안, 우리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불교적 유물 혹은 역사적 작품 정도로만 알려져 왔다는 것이다. 똑같이 ‘생각’을 주제로 한 예술 작품이며, 로댕의 사실적 표현보다 한 차원 높게 변형된 형식으로 보다 형이상학적으로 구현되었는데도 말이다.

아마도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서구 추종적 미술교육 탓인 것만 같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보 제83호), 삼국시대 7세기 전반

오감의 미학으로 빚어낸 진경의 묘미, 겸재 정선의 '박연폭포'

우리 전통 회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산수화다. 산과 물을 그린 그림이니까, 풍경화인 셈이다. 이런 양식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다. 언제 유입됐는지 정확하게 짚어낼 수 없지만, 고려 말에 이런 그림이 남아 있는 것으로 봐서 학계에서는 그 즈음으로 보고 있다. 산수화는 조선 후기에 들어서 우리 그림으로 자리 잡는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이가 겸재 정선(1676-1759). 겸재가 만든 우리 미감에 맞는 그림을 '진경산수'라 부른다. 진짜 경치를 담은 그림이라는 말이다. 무엇이 진짜 경치일까. 우리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담아낸 풍경화를 말하는 것이다. 겸재 시대 이전까지 산수화는 중국의 풍경을 모방해 그리는 것이었다. 거의 모든 면에서 중국(당시 명나라)의 영향 아래 있었던 조선시대였기에 그림도 예외일 수 없었다. 조선시대 화가들의 머릿속에는 중국 화가들이 그린 중국 경치가 들어가고 있었고, 그것을 얼마나 잘 따라 그리느냐가 화가로서의 입신출세의 척도였다. 따라서 우리 산천을 그리겠다는 겸재의 자각은 주체적인 미술 탄생의 신호탄을 울렸다.

겸재의 이런 생각이 잘 드러난 걸작 중 하나가 '박연폭포'다. 이 그림은 한국회화사에서도 최고의 한 자리를 차지한다. 개성 북쪽에 있는 폭포를 직접 보고 그린으로, 폭포 위에 바가지처럼 생긴 못이 있다 해서 이름 붙은 박연 폭포는 황진이, 서경덕과 함께 '송도삼절'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림은 실제 폭포와 많이 다르다. 겸재는 현장에서 받은 감동을 더욱 실감나게 표현하려고 실제 풍경과 다르게 그렸다. 우선 폭포의 길이와 폭이 실제보다 길고 넓다. 폭포의 시작과 끝 부분의 반원 모양을 가진 바위도 겸재의 창작인데, 이 두 개의 검은 점은 폭포를 위 아래로 끌어당기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물줄기에서 속도감과 역동성을 밀도 있게 느낄 수 있다. 그림 좌, 우에 짙은 먹색과 거친 붓터치로 그린 바위 역시 실제 현장에는 없는 경치를 그려 넣은 것이다. 덕분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줄기의 힘찬 느낌이 배가된다. 그리고 폭포 뒤편 절벽은 실제 경치와 똑같이 그렸는데, 옅은 색으로 처리해 폭포소리가 울림통을 통해 앞으로 나오는 듯한 기분을 준다.

거대한 폭포와 마주했을 때 눈을 압도하는 절벽과 함께 소리도 우렁차게 들려올 것이다. 그리고 촉촉한 물안개와 신선한 내음이 촉각과 후각을 자극할 것이다. 이렇게 모든 감각이 합쳐져 느껴지는 청량한 기운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리라. 겸재는 이것을 박연폭포로 담아냈다. 단순히 보는 풍경이 아니라 오감으로 체험하는 풍경이 진짜 경치를 감상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겸재 정선의 <박연폭포>, 종이에 수묵, 18세기



매우 편리한 신용카드, 보다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서둘러 도난, 분실신고를 하여 다른 사람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글 · 이창우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



신용카드를 도용당했을 경우, 피해보상 및 방법을 살펴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해서 이를 카드사에 신고한 경우, 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가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난 또는 분실신고를 빨리 하면 할수록 회원에게 유리하며, 신고는 전화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조사를 위한 수수료는 카드 1매당 2만원으로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신용카드 서명란의 미서명, 관리 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 위임, 담보 제공, 불법 대출 등 회원의 과실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을 져야 하며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서명 등 회원의 과실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라도 도난, 분실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부정사용 분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이 본인 확인 절차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를 자초하거나 확대하였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가족 사이에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가족 간에 서로의 카드를 바꿔 사용하는 경우,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없거나 보상이 제한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 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이는 카드 양도에 해당하여 만약 그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타인이 사용한 경우,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카드대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도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가맹점도 카드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조정 사례를 보면, 처가 남편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다가 남편이 그 카드를 도난당하여 제3자가 그 카드를 사용한 경우 카드소유자가 카드대금의 60%, 가맹점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과실로 카드대금의 40%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도용했을 때, 성립되는 형사책임!!!

훔치거나 주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형사책임은 크게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와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남의 신용카드를 훔쳐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도난된 신용카드를 신용카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신용카드 부정사용 죄)에 해당하고, 또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가맹점을 속이고 물품을 빼앗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 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죄에 흡수되어, 따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남의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 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해당 현금을 자기의 지배 아래 옮겨 놓은 것이 되므로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남의 신용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용카드 소유자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도, 정부의 인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현금카드 기능을 사용한 것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된 것이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 죄가 성립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한 책임), 동법 시행령 제6조의 9(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책임) 및 개인정보원 약관 :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보상하도록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회원 또는 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당해 신용카드 회원 또는 직불카드 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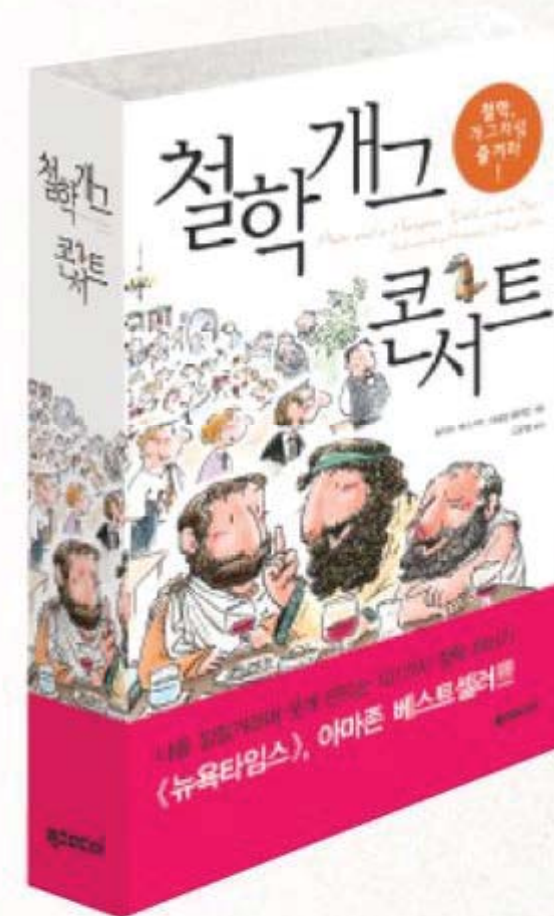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 :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철학, 개그처럼 즐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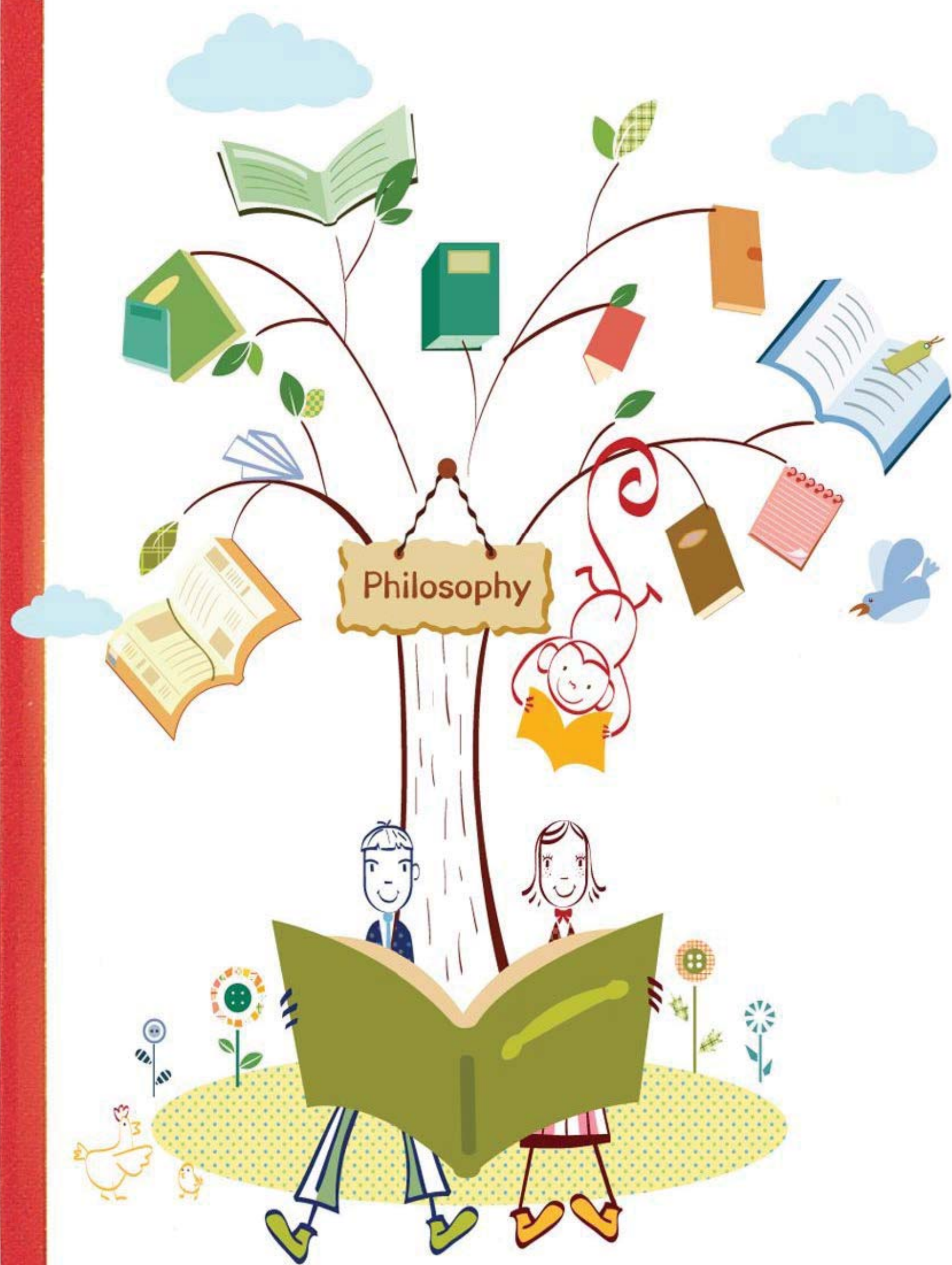
- 유머로 버무린 철학 이야기 <철학개그 콘서트>

철학은 우리를 무겁게 만들지만 개그는 우리를 가볍게 만든다. 그러므로 개그를 통해 철학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철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진실'이나 '본질'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철학의 중요한 개념들이 가볍게 묻히지 않는 것이 이 책이 가진 또 하나의 미덕이다. 웬만한 핵심 개념들이 모두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나면 철학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충실히 그릴 수 있다.

글 · 민정규 북코스모스 편집장



토머스 캐스카트, 대니얼 클라인 지음 /
렉스미디어 / 272쪽 / 13,000원



그게 말이 되는 거야? - 논리학

연역논리 : 연역논리는 일반적인 원리에서 개별 상황을 추리해내는 방법이다. 다음은 연역 논리의 진수를 보여준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것을 엉뚱하게 적용할 때가 정말 많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것은 잘못된 논리다. 마치 이런 논리와 같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 우리 애가 기르는 햄스터는 죽는다. 따라서 햄스터는 사람이다.' 연역논리를 망치는 또 다른 방법은 거짓 전제를 토대로 유추하는 것이다.

한 늙은 카우보이가 바에 들어가서 술을 시켰다. 카우보이가 바에 앉아서 위스키를 마시는데, 한 젊은 여성이 카우보이 옆에 와서 앉았다. 그러고는 카우보이를 보더니 물었다. "진짜 카우보이세요?" 카우보이가 대답했다. "평생을 목장에서 말을 몰고 담장을 고치고 소에 낙인을 찍었으니 그렇다고 봐야겠지." 여자가 말했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하루 종일 여자 생각만 하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여자 생각하고, 샤워하거나 TV를 볼 때도 여자 생각으로 가득하죠." 잠시 후 한 부부가 바에

들어와 늙은 카우보이 옆에 앉더니 물었다. “진짜 카우보이신가요?” 카우보이가 대답했다. “좀 전까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레즈비언이었지 뭐요.”

신은 존재하는가? - 종교철학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 : 불가지론자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신이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는 사람이다. 불가지론자보다 한걸음 더 나간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한다. 이들은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다. 17세기 프랑스 수학자 겸 철학자 파스칼은 신을 믿겠다는 결정이든 정반대 결정이든 근본적으로 내기와 같다고 주장했다. 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가보니 신이 없다면 그다지 큰일이 아니다. 뭐, 지옥에 떨어질 칠대 죄악을 제대로 즐겨보지 못한 게 아까울지는 모르겠지만 반대 결론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반대로 신이 없다고 믿었는데 마지막에 가보니 신이 있다면, 엄청난 것. 즉 영원한 축복을 놓치게 된다. 파스칼에 따르면, 따라서 신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전략이 유리하다. 이것을 학자들은 “파스칼의 내기”라고 한다. 평범한 우리는 이것을 “안전빵으로 간다”고 한다.

파스칼의 명상록 『팡세』에 영감을 받은 한 자그마한 노파가 현금 1억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든 채로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했다. 조심성 있는 은행원이 어디서 돈이 났느냐고 물었다. 노파가 말했다. “도박이라우. 내가 한 도박하거든.” 흥미를 느낀 은행원이 말했다. “주로 어떤 걸 하시는데요?” “온갖 걸 다 하지. 예를 들면, 자네가 내일 정오까지 오른쪽 엉덩이에 나비 문신을 새긴다는 데 2,500만 원 걸지.” “와, 그거 재밌겠는데요. 하지만 그런 얼토당토않은 내기로 고객님의 돈을 빼앗는 건 옳지 않죠.” “이렇게 생각해보시게. 자네가 내기에 응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은행에 돈을 넣을 거라고.” “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저도 걸겠습니다.” 다음날 점심이 되자 노파가 변호사를 증인으로 데리고 왔다. 은행원이 뒤로 돌아서 바지를 내려 자기가 이겼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노파가 말했

다. “좋아. 하지만 확실히 하고 싶으니 조금만 더 몸을 숙여보겠나?” 은행원이 그대로 하자 노파가 수궁하면서 손가방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꺼내서 세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던 변호사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앉아 있다. 은행원이 물었다. “저 사람 왜 저래요?” “아, 그냥 지는 걸 못 참아서 그래. 오늘 점심까지 자네가 사무실에서 엉덩이를 까 보여준다는 걸로 나랑 1억 내기를 했거든.”

사회의 정의는 무엇일까? - 사회철학과 정치철학

힘이 곧 정의다 : 16세기에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는 근대 치국책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르네상스시대 군주들에게, 기존에 미덕으로 받아들이던 것을 무시하고 “필요할 때는 악하게 행동하라”고 조언했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국가보다 권위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군주에게 그가 권한 것은 한마디로 “마키아벨리즘”이었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이 말하는 ‘덕’이란 군주가 정치적으로 살아남게 해주는 것을 가리킨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군주란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받는 편이 낫지만 그렇다고 증오를 사서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권력이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것은 무자비하게 권력을 추구하되 정당하게 보이는 것이다.

한 남자가 라스베이거스에서 1억을 따고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돈을 집에 가져가서 뒤뜰에 묻었다. 다음날 아침에 뒤뜰로 나간 남자는 묻었던 곳에 구멍이 나 있는 걸 발견했다. 발자국을 보니 옆집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곳은 농아의 집이었다. 하여 남자는 길 아래에 사는, 수화를 아는 교수에게 찾아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남자는 총을 챙겨 가지고 교수와 함께 이웃집 문을 두드렸다. 이웃이 대답하자 남자가 총을 흔들면서 교수에게 말했다. “저 자식한테 제 돈 1억을 돌려주지 않으면 당장 죽이겠다고 말해주세요.” 교수가 이웃에게 수화로 말을 전하자, 농아는 자기 집 뒤뜰에 있는 체리나무 아래에 돈을 숨겼다고 수화로 대답했다. 교수가 남자를 보며 말했다. “말하지 않겠다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군.” 🍌

ACRC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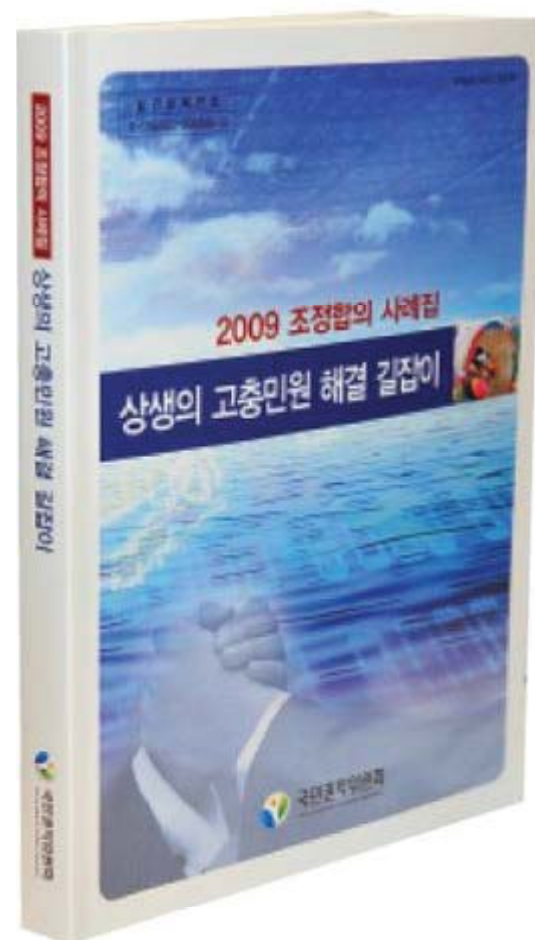
‘가을산 청렴 세상 캠페인’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23일(토) 충남 계룡산과 서울 관악산의 주요 등산로에서 가을 산행객을 대상으로 ‘가을산 청렴 세상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대학생 청렴홍보단과 어머니 청렴지킴이, 권익위 직원들과 함께 충청남도교육청,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 총 60여 명이 캠페인에 참가해 등산객들에게 등산용 손수건을 나눠주고, 안전등산퀴즈 및 가족사진촬영 이벤트를 가졌다. 특히, ‘대학생 청렴홍보단’과 ‘어머니 청렴지킴이’는 10월 초부터 매 주말마다 산행객을 대상으로 경기도 광고산, 부산 금정산·구덕산 일대에서 ‘가을산 청렴 세상 캠페인’을 벌여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청렴 캠페인을 통해 가을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청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1회 청렴 촌극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31일 오후 대학로에 소재한 원더스페이스 세모극장에서 촌극을 통해 우리 사회의 청렴 문화를 되짚어보는 <제1회 청렴 촌극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전국의 고등학생 이상 아마추어 연극인을 대상으로 1차 예선(서류심사)을 거쳐 본선에 오른 8팀이 공연을 겨룬 이번 대회에서는 경북대학교 연극반의 작품명 ‘10분 토론: 부정부패, 이대로 괜찮은가?’가 최우수상을, 고려대학교 정경대 연극패 정선영이 연기상을 각각 수상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제1회 청렴 촌극 경연대회>는 고등학생 이상 아마추어 연극인들을 대상으로 정직한 삶의 가치인식을 통해 청렴의식을 고양시키고 사회 전반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고등부 이상 아마추어 연극인 19개 팀이 참가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연극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직 및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와 ‘청렴 세상’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촌극은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각종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정합의 사례집 '상생의 고충민원해결 길잡이' 발간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한 해 동안 조정 및 합의로 민원을 해결한 사례를 수록한 조정합의 사례 '상생의 고충민원해결 길잡이'를 발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 410개 기관에 배포하였다.

권익위는 2009년, 약 3,800여 건의 고충민원을 조정과 합의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공공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해왔으며, 더 나아가 상생을 통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노력해왔다.

이번에 발간된 조정합의 사례집에는 지난해 조정합의로 고충민원을 처리하였던 사례 중 사례선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공공갈등 해소의 귀감이 되는 사례를 엄선하여 조정 사례 32건, 합의 사례 32건 총 64건을 각각 수록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정과 합의를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험난한 여정이다. 이 사례집이 공공기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 처리로 공공갈등을 해소하는 데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거주 인도네시아인 대상 고충민원 상담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국내 거주 인도네시아인을 대상으로 '외국인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에 앞서 이날 12시부터 한 시간 가량은 안산 시내에 있는 인도네시아 음식점(원곡동 '세더하나')에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관계자, 국내 거주 인도네시아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안산시외국인지원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 인도네시아인 권익증진 간담회'를 갖고 권익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안산 지역 상담에는 임금, 노동, 복지, 출입국, 비자, 각종 법률 등을 상담하기 위해 고충민원심의관을 비롯해 위원회 전문 조사관과 산업인력공단 전문가 등 11명이 참여하였다. 권익위는 현장에서 바로 한국의 법률이나 각종 제도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통해 외국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상담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는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였다. 권익위는 12월 25일부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인도네시아어로도 고충민원을 접수받고 있다.

편집 후기

이번 호 <국민권익>도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국민권익>은 독자 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을 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을 환영합니다.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마감 1월 15일)

Quiz+Quiz

1			2	7
3				
		4		
6	9			
		8		

가로

1. 권익위가 최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선택한 온라인 매체. 가장 영향력이 큰 뉴미디어의 하나로,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미디어
3.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에 걸쳐 주최한 '국제 반부패 □□□ 및 협력 강화 심포지엄'은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였다.
4. 이탈리아의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가 1723년에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가장 사랑받는 바로크 음악 중 하나. 이 곡은 본래 열두 곡이 포함된 <화성과 창의 시도>의 일부분으로 출판되었으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느낌을 묘사한 네 곡이 자주 연주되면서 현재와 같이 따로 분리되어 □□로 불리게 되었다.
6. 차를 끓여 담는 그릇. 주전자와 모양이 비슷하며 사기, 놋쇠, 은 따위로 만든다. 같은 말로 차관(茶罐).
8. 핀란드와 같이 북극지방의 겨울철에만 볼 수 있는 빛의 향연, □□□

세로

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무료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대표적인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 현재는 저작권 문제로 유료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 반부패 실무 그룹은 컨퍼런스콜 및 대면회의를 통해 G20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의 반부패 실무진 및 전문가들의 참여 아래, 'G20 정상회의' 시 각국 정상들에게 제출할 'G20 반부패 □□□□'을 마련하였다.
7. '한국 발레리노의 교과서'라 불리는 발레리노 이원국이 평생을 다해 지켜나가고자 하는 서양의 대표적인 무용 형식
9. <국민권익>블로그 중 '진짜 청백리' 코너는 조선시대 이전의 청백리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소위 출세한 인물들이 높은 자리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공과 사를 분명히 하며 검소하게 살았던 이야기들을 다루며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지난호 퀴즈 정답

	1	궁		2	국	7	민
3	오	5	정	9	상	회	의
	리			주			
6	홍	보	단			10	비
			8	친	환	경	

- ※ 낱말 퀴즈의 정답을 독자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 퀴즈에 응모하신 분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 고객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 ◎ 청렴사적지 탐방 기사를 읽으며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청백리들의 삶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객사의 오동나무 한 그루까지도 국가의 재물로 소중히 여겼던 이순신 장군의 일화는 공직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 줍니다. 청렴사적지 탐방 교육은 앞으로 모든 공직자가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교육코스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식 씨 (대전광역시 서구)

- ◎ 한 해 동안, 권익위에 제기되는 민원이 2만 8천 건 이상이라고 하는데 민원 제기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실제로 행정관청의 부당한 행정 행위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훨씬 더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청자가 참여하는 TV 프로그램 '현장출동 국민 속으로' 제작현장을 보면서 국민들의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권익위의 노력을 엿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장혜란 씨 (인천광역시 부평구)

- ◎ 민원인의 답답한 사정을 묵묵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운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경찰민원과 하왕수 조사관의 민원해결 방법들을

보면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포용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민원 해결뿐 아니라 같은 유형의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고 계신다니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조윤철 씨 (전라남도 곡성군)

- ◎ '지구는 지금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 이 물이 부족한 지구 전반의 현 상황이 '물 절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물 관리 및 보존의 노력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이태권 씨 (서울시 영등포구)

- ◎ 쉼 없이 달려온 2010년, 어느덧 마무리할 시기가 왔습니다. '말을 타고 열심히 달리다가도 잠시 쉬어 뒤를 되돌아본다'는 인디언 속담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미처 쫓아오지 못할까봐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어려운 이웃, 소외된 사람들이 다 같이 잘 달릴 수 있도록 권익위의 따뜻한 정책을 기대해봅니다.

김남일 씨 (강원도 강릉시)

당신의 청렴이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을 만듭니다!!!

〈청렴가족 편〉 TV광고 이야기

부정한 선물은 주지도 받지도
않는 청렴 아빠!



이익보다는 정직이
우선이라는 청렴 엄마!

현장을 발로 뛰며 고충처리에
앞장 서는 청렴 형아!



연줄보다 실력으로
승부하는 청렴 누나!

접대할 돈으로 기술개발한다는
청렴 삼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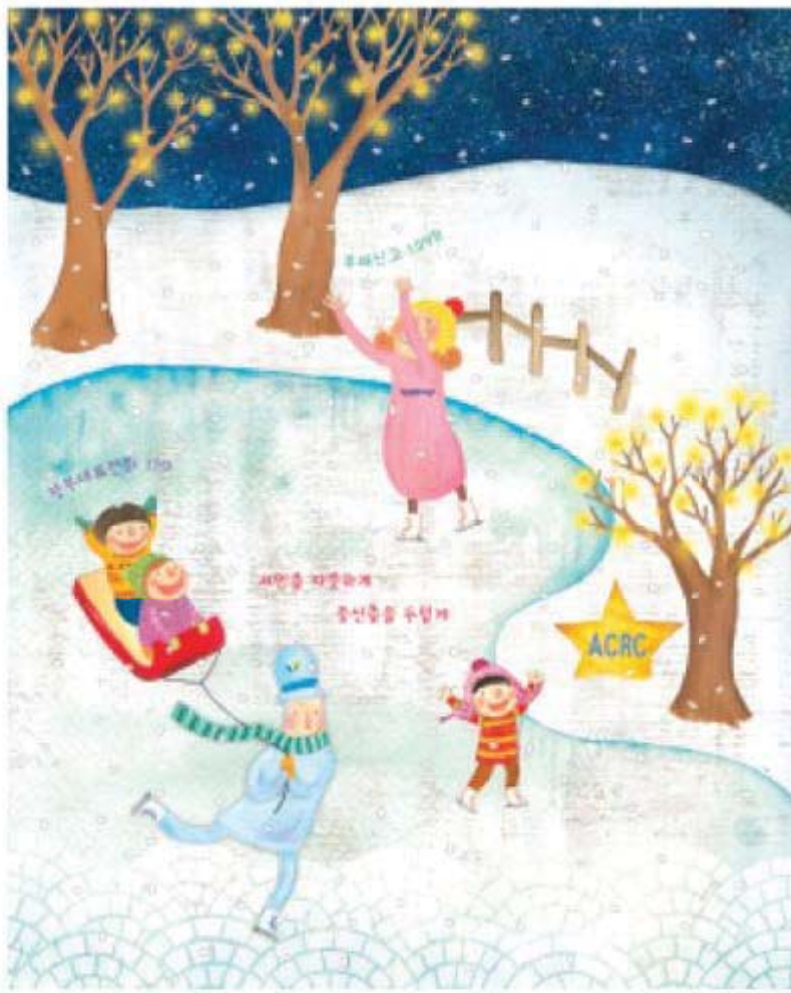
당신의 청렴이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을 만듭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를 '청렴한 나라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TV 공익광고를 제작·방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TV 광고에서는 '청렴 가족'이 등장했습니다. 부정한 선물은 주지도 받지도 않는 청렴 아빠, 정직이 우선인 청렴 엄마, 연줄보다 실력으로 승부하는 청렴 누나, 접대할 돈으로 기술개발을 실천하는 청렴 삼촌. 바로 우리 가족, 여러분 가족의 모습입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직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반부패·청렴 의식을 공유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회 모든 부문에서 반부패·청렴이 기본이 될 때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행복한 국민'의 청렴 선진국이 실현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표지 일러스트 · 함서정

코끝을 루돌프 코처럼 빠알가니 달아오르게 만드는
차디찬 칼바람으로 겨울이 그 시작을 알리고…….
거리거리마다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연시 준비로
반짝반짝 빨강, 노랑, 파랑 형형색색 빛방울이
송송이 땀처럼 뜨겁게 들뜬 분위기를 전합니다.

올 겨울에는 하얀 눈도 많이 내리겠지요.
한 해 동안 쌓인 시름과 고됨이
모두 모두 새하얗게 사라져 버리게…….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를 따스하게 보듬을 수 있는
1등 기관이 되도록 오늘도 전 속력을 다해 달리겠습니다.

